



제 21권 제12호(통권 169호)

2020년 12월 21일 발행

<비매품>

발행인 김홍길

인쇄처 팜커뮤니케이션

발행처 사단법인 전국한우협회

주 소 서울시 서초 서초1동

1621-19 제2축산회관 2층

전 화 (02) 525-1053

(02) 597-2377

팩 스 (02) 525-1054

이메일 025251053@daum.net

등록번호 서초라 11499

vol. **169** 2020.12.  
Hanwoo Journal

## contents

### 현장스케치

46 경기 웰빙 한우 그림 사진 공모전 수상작

### 특집 | 2020년 한우산업 결산

52 2020 협회 주요 활동 스케치

63 한우산업 유통지도가 바뀌고 있다

71 한우, 코로나 소비 위축에도 '약진'

77 한우산업 생산 현장 규모화 가속

### 시선집중

82 저능력 미경산우 비육지원사업 편람 안내

96 온실가스 문제 관련 농축산업 및

한우산업 대응 방안 모색

103 농업계 최초 한우사랑상품권발행 초대박 행진

### 사양·컨설팅

108 사료 원료곡 가격 '폭등' 내년 사료가격 '비상'

114 농촌경제연구원 축산관측 12월호

120 한우사육 100문100답

### 소식·정보

125 소식·정보

# 경기 웰빙 한우

## 그림 사진 공모전 수상작

지난 11월 ‘제5회 경기 웰빙 한우고급육 평가대회’의 온라인 소비촉진행사의 일환으로 열린 ‘온라인 어린이 한우 그림그리기 대회’와 ‘온라인 한우 사진 공모전’의 수상작이 발표됐다.

그림그리기 대회는 한우를 주제로 그린 그림을 통해 어린이의 창의성, 순수성, 개성 등 실력을 겨루는 행사다. 유치원생, 초등학교생을 대상으로 8절 도화지에 그림을 그려 사진으로 촬영한 뒤 온라인을 통해 제출하는 방식으로 접수했다.

한우 그림그리기대회에 출품된 그림 중 심사를 통해 금상 3점, 은상 3점, 동상 15점이 선정됐다. 온라인 한우사진공모전은 금상 1점과 은상 2점, 동상 5점이 선정됐다. 수상작들은 현재 경기도 북부청사 1층 로비에 전시됐다. (12.8~12.21)

### 온라인 어린이 한우 그림그리기 대회 수상자

	유치부	초등 1부 (1~3학년)	초등 2부 (4~6학년)
금상	장하준	남효인	박민선
은상	이도윤	한소정	성시우
동상	유지윤 김지운 이경민	이지율 성윤후 이레	박나은 박하람 이호은



온라인 한우 사진 공모전 금상 이복현



유치부  
금상 장하준



유치부  
동상 김지은





초등 1  
금상 남효인



초등 1  
한상 황소성





초등 2  
금상 박민선



초등 2  
은상 성시우



특집

20/20

# 한우산업 결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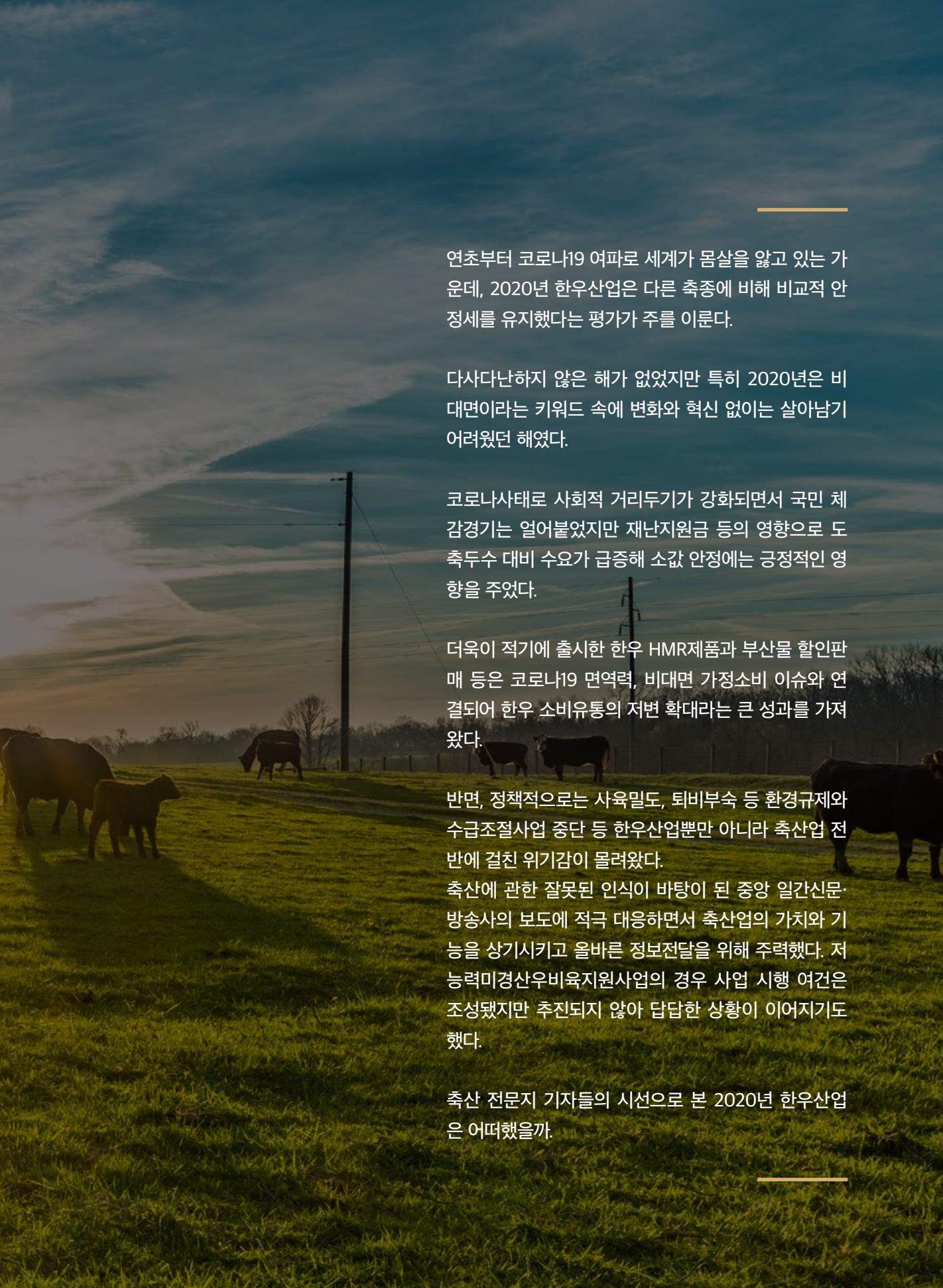
한우산업 안정화 정책에

밀운불우 密雲不雨

소비·유통분야는

기략종횡 機略縱橫





---

연초부터 코로나19 여파로 세계가 몸살을 앓고 있는 가운데, 2020년 한우산업은 다른 축종에 비해 비교적 안정세를 유지했다는 평가가 주를 이룬다.

다사다난하지 않은 해가 없었지만 특히 2020년은 비대면이라는 키워드 속에 변화와 혁신 없이는 살아남기 어려웠던 해였다.

코로나사태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강화되면서 국민 체감경기는 얼어붙었지만 재난지원금 등의 영향으로 도축두수 대비 수요가 급증해 소값 안정에는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다.

더욱이 적기에 출시한 한우 HMR제품과 부산물 할인판매 등은 코로나19 면역력, 비대면 가정소비 이슈와 연결되어 한우 소비유통의 저변 확대라는 큰 성과를 가져왔다.

반면, 정책적으로는 사육밀도, 퇴비부숙 등 환경규제와 수급조절사업 중단 등 한우산업뿐만 아니라 축산업 전반에 걸친 위기감이 몰려왔다.

축산에 관한 잘못된 인식이 바탕이 된 중앙 일간신문·방송사의 보도에 적극 대응하면서 축산업의 가치와 기능을 상기시키고 올바른 정보전달을 위해 주력했다. 저능력미경산우비육지원사업의 경우 사업 시행 여건은 조성됐지만 추진되지 않아 답답한 상황이 이어지기도 했다.

축산 전문지 기자들의 시선으로 본 2020년 한우산업은 어떠했을까.

---

## 2020년 협회 주요 활동 스케치

- 협회전용사료 '대한한우' 확대
- 여야 정당 농업농촌 정책 총선 당론 채택
- 여성·청년분과위원회 조직 구성
- 한우 가정간편식(HMR) 출시 등 소비 다변화
- 코로나19, 수해 성금전달로 사회공헌 모범 실천
- 한우 유통업계와 상생협력사업 지속
- 제로페이, 홈쇼핑 등으로 한우유통소비 구조 혁신
- 저능력 미경산우 비육지원사업 등 수급사업 시행
- 대통령 직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농정정책 수립
- 안티축산 적극 대응 및 한우 우수성 전파
- 한우산업 안정화 정책 추진

전국한우협회는 한우 농가 여러분과 함께 대한민국  
농업·농촌을 지켜나가고 있습니다.

밝고 안정적인 한우산업 여건을 조성하고 한우인들이 마음놓고  
고품질 한우사육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한우 농가 현장 목소리와 소 울음소리에 귀 기울이겠습니다.

한우인 여러분들의 지속적인 성원과 참여를 당부드립니다.



전국한우협회



2020년  
협회  
주요활동

1.3

OEM 사료 출시 1주년 보고대회



1.15

신년 기자 간담회

1.15  
~  
1.17

정기감사

1.20

경북 도지사  
농업인 단체장 간담회



2.4

심상정 정의당 대표 간담회



2.10

여성분과위원회 임원 회의





2.11

자유한국당 대표  
정책간담회



2.12

한우유통전문가  
간담회

## 2.18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의장 간담회



## 2.20 제2차 긴급 이사회



코로나 성금 기부 전달식(경북도청, 대구시청) **3.17~18**



협회 전용 OEM사료 운영협의회 **3.27**

## 2020년 협회 주요활동

4.17

중앙회 감사선거  
당선증 교부



4.21

축단협 정기총회  
(사무국 이임 -  
한돈협회 하태식 회장)







**4.29**

한우한마리 곰탕  
시식회



**5.14**

도사무국장·실장  
간담회  
(충북 제천)

2020년

협회

주요활동



5.28

농림축산식품부 축산국장  
한우수급 및 안정화 방안 간담회



6.5

한우 수출분과  
위원회 회의



8.20

제1차 회장단 회의



10.14

전국한우능력 평가 대회  
경매 행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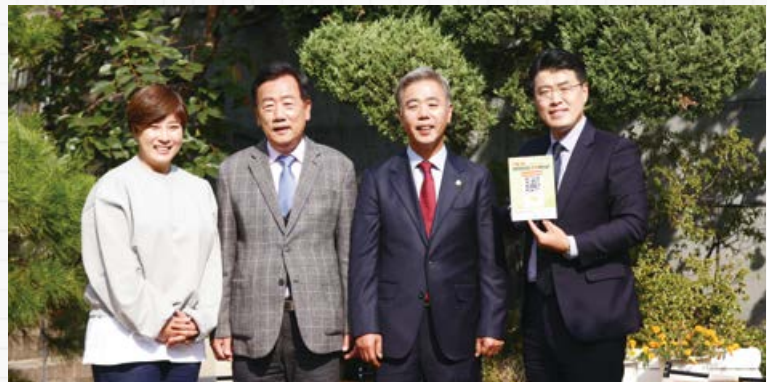
10.30

한우사랑상품권  
제로페이 협약식



11.1

대한민국이 한우먹는날  
온라인 기념식



## 2020년 협회 주요활동



**11.11**

농업인의날 김홍길 회장  
은탑산업 훈장,  
이흥규 상주시지부장  
산업포장 수상



**12.15**

온라인 한우유통 바이어 대회



**12.16**

한우 후계 장학생  
장학금 전달



# 한우산업 유통지도가 바뀌고 있다

코로나發 2020년 한우산업 '들썩'  
한우협회 '게임체인저' 될까  
(게임의 룰을 바꾸는 시장 창조자)

박현욱 \_ 농축유통신문 편집국장



2020년 농축산업계는 재난의 연속이었다. 올 초 코로나19가 전국을 뒤덮으면서 소비 시장에 큰 변화를 불러일으켰고, 8~9월 유례없는 긴 장마와 연이은 태풍으로 농심이 초토화되기도 했다. 10월에는 1년 만에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발생해 한돈 농가들을 긴장시켰으며 연말에는 조류인플루엔자(AI)까지 발생하면서 확산일로를 겪고 있다.

그나마 질병이라는 대형 이슈에서 벗어난 한우산업은 다양한 변화가 감지되고 있다. 20두 미만의 한우 농장의 감소세가 뚜렷해지고, 코로나19라는 변수가 외식·소비시장에 태풍의 눈이 되면서 한우 유통시장에 지각변동을 일으키고 있다.

## 한우산업 7년간의 통계 ‘규모화’ 각인

### 2020년 “9만·320만·5만·42%”로 정의

### ‘번식+비육’ 일관사육이 규모화 촉진

3/4분기기준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농장수	118,350	103,853	98,420	95,017	92,608	90,142	88,893
마릿수	298만	286만	286만	296만	301만	311만	323만
20두 미만 농장수	79,493	66,993	61,803	57,444	54,181	50,422	47,656
100두 이상 농장수	5,846	5,933	6,030	6,513	6,724	7,136	7,556
100두 이상 농장생산비중	34.9%	37.2%	38.2%	39.8%	40.2%	41.2%	41.8%

▲ 한우 사육 통계(자료=통계청 가공, 단위=호,마리)

올해 한우산업을 숫자로 정의하면 9만, 320만, 5만, 42%(3/4분기 기준)로 요약된다. 올해 한우 농장수는 9만 호를 하회했고, 사육두수는 320만 두를 넘겼다. 또한 20두 미만을 사육하는 소규모 농장수도 5만 호 아래로 하강하면서 4만 7,656곳이 살아남았다. 100두 이상을 키우는 농장은 거꾸로 큰 폭의 성장률을 기록, 7,556 농장에서 한우를 키



우고 있다. 100두 이상 규모의 농장에서 생산되는 한우 비중은 국내 한우 생산량의 약 42%를 기록하며 규모화를 증명했다.

전국 한우 농장의 8.5%에서 42%의 한우를 키우고 있는 셈이다. 한우산업의 규모화는 번식농가와 비육농가의 수익성에 기인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비육농가에 비해 주머니 사정이 열악한 번식농가는 위기가 거듭될수록 수익성이 좋은 비육농가로의 전향을 선택해서다. 때문에 한우 생산은 일관 사육 방식이 대세로 자리 잡고 있는데, 비육농가도 송아지 수급이 여의치 않자 어쩔 수 없이 일관사육을 택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 만들어지고 있는 것이다.

복수의 한우 전문가들은 “한우산업의 생산구조를 분석해보면 번식과 비육이 양분했던 시장에서 이제는 번식과 비육을 함께하는 일관사육 방식이 대세로 자리잡고 있다”면서 “소규모로 경영하던 번식농가들이 비육을 하면서 농장의 규모화를 앞당기고 있으며, 앞으로 이런 경향은 뚜렷해 질 것”이라고 분석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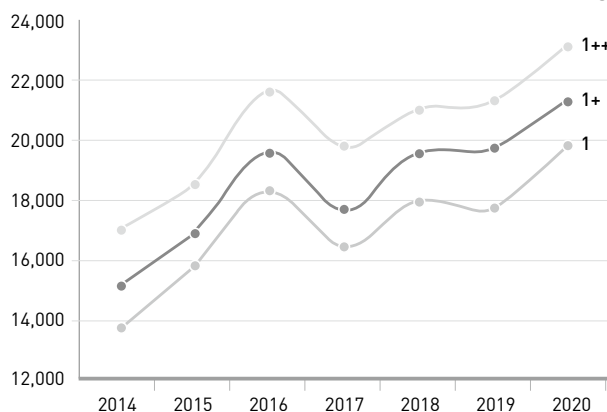
한우 연도별 경락 가격 동향(1~11월 평균)

(단위:원/kg)

등급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1++	16,890	18,541	21,596	19,764	20,982	21,305	23,156
1+	15,096	16,909	19,567	17,681	19,469	19,744	21,371
1	13,781	15,825	18,295	16,418	17,968	17,742	19,847

한우 경락 가격 동향

(단위:원/kg)



## 한우 도축 실적

1~11월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도축두수	94만7천	92만3천	78만	80만	79만1천	79만5천	81만1천
전년증감	2만5천↓	2만4천↓	14만3천↓	2만↑	9천↓	4천↑	1만6천↑

## 공급 증가에도 한우값 ‘U자 반등’ ‘나홀로 호황’에도 한우농가 불안 수입산 ‘호시탐탐’ 우리 식탁 겨냥

올해 한우가격 전망에 대해 대다수 전문가들의 예측은 보기 좋게 빗나갔다. 올해 도축 물량 증가로 가격 하락을 점쳤던 전문가들조차 한우가격 상승기조에 놀라는 분위기다.



올해 한우가격은 지난 6년간('14~'19) 도축물량과 가격변동 간 상관관계를 깨는 기록을 세웠다. 도축물량(공급)이 늘면 가격이 하락하는 공식을 깨고, 도축물량과 가격이 커플링(coupling, 동조화)되는 기현상이 발생한 것이다. 2015년, 2016년, 2018년 모두 전년과 비교해 도축물량이 줄면서 가격이 상승했고, 2017년은 도축물량이 늘면서 가격이 큰 폭으로 떨어졌다. 2019년에는 공급물량 늘자 가격이 보합세를 보이기도 했지만, 올해는 전년과 비교해 1만 6천 두의 추가 도축물량이 쏟아졌음에도 오히려 가격은 큰 폭의 상승세를 기록했다.



유통 전문가들은 한우 콘크리트 소비층이 박스권을 탈출하면서 한우 소비시장의 저변을 넓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진단하고 있다.

복수의 유통 바이어들은 “코로나19라는 악재가 오히려 한우시장에 호황을 가져다줬다”면서 “외식시장은 쪼그라든 반면 가정 내 한우 소비가 큰 폭으로 치솟으면서 가격을 방어하는 결정적인 변수가 됐다”고 진단했다. 이어 “올해 3~5월 정부의 재난지원금 투입으로 뜻하지 않은 구매력이 생기면서 한우 고기에 대한 수요로 이어졌다”면서 “한우를 맛본 새로운 소비층에서 지속적인 구매로 이어질지 향후 1년이 한우 소비시장을 결정짓는 분수령이 될 것”이라고 예측했다.

하지만 한우의 나홀로 호황에 농가들은 내심 불안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현재 한우 사육두수가 큰 폭으로 치솟고 있는데다가 수입산 쇠고기의 물량 공세가 심상치 않기 때문이다.

특히 대형할인매장과 온라인 오픈마켓에서의 수입 쇠고기의 약진이 두드러진다.

대형마트 3사의 유통바이어들은 “한우에 비해 저렴한 수입산 쇠고기를 찾는 소비자들이 크게 늘고 있다”면서 “과거 품질과 신선도에서 약점을 보였던 수입산도 점차 상향 평준화를 이루며 소비자의 선택을 받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빠르게 성장하는 수입 쇠고기 시장을 방어하는 다각도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실제 수입 쇠고기는 일선 온·오프라인 매장을 가리지 않고 올해 두 자릿수의 판매 신장률을 보이면서 육류 카테고리에서 매출을 주도했던 국내산 쇠고기의 아성을 넘보고 있다.

## **오프라인 편견 깨고 온라인으로 환승**

### **SSG닷컴 등 온라인몰 가파른 성장**

### **쿠팡, 특수부위 한우 라인업으로 무장**

올해 한우 소비시장은 거대한 하나의 실험 무대였다.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가 생활화 되면서 ‘집밥족’이 크게 늘어 온라인몰과 배달 음식은 재난속의 독주체제를 견고히

했다. 통계청이 발표한 한국의 사회동향 2020 자료에 따르면 올해 온라인 음식 서비스 매출은 1조 17,100억 원으로 몸집을 크게 불렀다. 이는 2017년 대비 9배 성장한 수치다. 당초 온라인 성장에 편승하지 못했던 축산물도 온라인으로 갈아타면서 온라인 시장에 불을 지폈다. 특히 단가가 높은 한우의 경우 온라인몰의 효자 상품으로 등극하면서 온라인몰의 주력 전략품목으로 탈바꿈하고 있다.

국내 최대 온라인몰인 SSG닷컴은 올해 한우 매출(1~11월)이 지난해 대비 60.7% 상승하는 기염을 토했으며, 위메프의 경우 같은 기간 한우 매출이 13.2% 상승했고, 국내 최대 오픈마켓인 쿠팡의 경우 전년 대비 한우 매출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고 밝히는 등 축산물의 온라인 환승이 두드러지고 있다.

김세민 쿠팡 홍보팀장은 “최근 한우 소비 트렌드가 기존 국거리, 구이류 등의 부위를 벗어나 다양한 특수부위를 포함한 프리미엄 한우 선호도가 높아지는 추세”라고 말했다.

이하늘 위메프 홍보실장은 “최근 온라인을 통한 축산물 구매가 급증하면서 신선도가 강조되고 있어 위메프는 ‘갯신선 프로젝트’를 도입 신선식품 품질 강화에 나섰다”고 말했다.

김하은 SSG닷컴 파트너도 “한우는 육질이 부드러운 암소, 건강한 환경에서 자란 한우 등 프리미엄 상품을 꾸준히 가져와 고객에게 선보일 것”이라고 전했다.

## 대형마트 ‘투뿔넘버나인’ 고급화 강화 집객 효과 줄며 객단가 강화로 승부 생산자와 지속적인 협업 이벤트 필요

온라인의 깜짝 성장과 비교해 오프라인 할인매장은 상대적으로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특히 재난지원금 혜택에 대형마트가 제외되면서 한우 매출 상승 기조의 약발이 미치지 못하는 평가다. 오히려 한우 단가 상승으로 가격 산정에 어려움을 느낀 대형마트는 객단가 강화로 대응하고 있다.





김민성 홈플러스 한우 바이어는 “코로나19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대형마트 매출과 긴밀히 연관된다”면서 “거리두기 단계가 격상되면 집에서 생활하는 시간이 늘어나면서 매출이 오르고 단계가 하향 조정되면 떨어지는 현상이 관찰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질병에 대응하기 위해 면역체계를 강화하려는 소비자들은 수입육보다 한우를 찾는 점은 긍정적이지만 가격 측면에서는 수입육과의 경쟁에서 약점으로 작용하고 있다”면서 “홈플러스에서는 한우의 등급 상향 전략, 즉 특수부위를 팔거나 1등급 점포들을 1+등급 점포로 바꿔 객단가를 높이는 방식으로 대응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고급화 전략과 더불어 경매에 직접 참여하면서 수익을 창출하는 할인매장도 있다. 롯데마트의 경우 공판장에서 연간 3,000~3,500마리의 한우를 직접 구입, 육가공업체를 거치지 않고 원가를 절감하고 있다. 이는 롯데마트 한우 구매에 절반에 이르는 수치다.

노병석 롯데마트 한우바이어는 “공판장 직매입이 두당 35~40만 원 정도 원가를 절감하는 효과를 보고 있다”면서 “지난해보다 약 13.8% 상승한 한우가격에 대응하기 위해 유통업체를 거치지 않고 단계를 줄이는 전략을 택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롯데마트에서는 오히려 한우의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고 투썸(1++) 넘버나인(9) 등급만 직접 선별해 구매하고, 우수한 지역 한우를 유치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생산자단체와의 지속적인 협력을 강조하기도 했다. 복수의 유통바이어들은 “사실 대형 마트에서 한우 판매는 노력에 비해 성과를 올리기가 쉽지 않다”면서 “한우협회와 한우 자조금과의 지속적인 연대를 통해 깜짝 할인행사로 소비자 저변을 넓혀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 한우협, 사료·유통 경쟁력 강화 승부수 온라인 사업부 강화 부산물 판매 효과 톡톡

올해 한우 소비시장 재편에 한우협회에서도 긴밀히 대응하고 있다. 2020년은 협회가 사료부터 유통까지 ‘농민 중심 한우산업 만들기’의 원년으로 기록했다는 평가다. 한우협회에서 출시한 협회전용OEM사료는 론칭 2년만에 곳곳에서 등급이 월등이 좋아졌다는 평가가 줄을 이으면서 한우 품질을 끌어올렸고, 비대면 사회로의 전환에 협회의 온라인 유통 사업국을 강화하면서 대응했다. 협회에서 운영하는 한우 전용 온라인 유통플랫폼 ‘한우먹는날’은 전통적인 효자상품인 한우 구이류뿐만 아니라 한우 부산물까지 높은 판매실적을 올리며, 한우 판매에 톡톡한 역할을 하고 있다. 연말에는 한우 40% 할인 행사를 이어가며 넓어진 한우 소비층에 대한 어필을 하겠다는 목표다. 한우 직거래유통망도 코로나로 인해 물량이 다소 줄기는 했지만 내실을 기하면서 공정한 한우 유통시장을 위한 견제 역할까지 도맡고 있다.

2020년 한우산업을 주도할 수 있는 경제사업을 안정적으로 안착시킨 한우협회. 급변하는 한우 유통시장에 견제구를 날린 한우협회가 한우산업을 주도하는 선발투수로, 시장의 판도를 변화시키는 ‘게임체인저’로서 역할을 할 수 있을지 2021년이 기대된다.



# 한우 코로나 소비 위축에도 '약진'

온·오프라인서 모두 '통했다'  
단순 구이 문화에서 오마카세로 무대 옮겨  
가정 내 소비 늘자 '한우' 간편식도 인기

이혜진 \_ 축산경제신문 기자





SSG닷컴은 e-mart 미트센터와 손잡고 본격적으로 한우고기의 새벽배송을 시작했다.

올해 소비트렌드의 화두는 단연 ‘언택트’였다. 코로나 19라는 미증유 사태가 만들어낸 비대면 소비 트렌드가 올 한해 전체 산업을 이끌었다. 코로나 19로 인해 급격하게 확산된 새로운 소비트렌드를 따라 주 소비 무대가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변화하고 회식·외식 문화가 가정 내 소비로 전환됐다.

축산물도 예외는 아니었다. 새로운 소비패턴 변화에 축산업계의 희비가 엇갈렸다. 온라인 구매가 어려운 ‘우유’, 학교급식 중단 등으로 정육부위가 정체된 ‘한돈’은 힘든 한해를 보냈다.

다행이도 한우는 온오프라인을 넘나들며 다양한 유통경로를 통해 판매 활성화가 되면서 효과를 톡톡하게 누렸다.

도축 물량이 늘어났음에도 코로나19 초기에는 온라인을 통한 가정 내 소비가 늘고, 재난지원금 지급 정책 이후에는 정육점, 하나로 마트 등 오프라인에서 한우고기 소비가 증가했기 때문이다.

또 외식 문화 진화도 한우산업 견인에 한몫했다. 과거 생고기를 직접 구워먹는 구이 전문점이 주를 이뤘던 것과는 달리 소규모 프라이빗 오마카세 등 파인다이닝(fine-dining) 형태로 진화하면서 새로운 수요를 만들어냈다.





한우협회는 부산물 소비활성화를 위해 HMR 상품을 기획하고 '한우 한 마리 곰탕'을 출시했다.

## 한우, 온·오프서 '약진'

한우는 온라인과 오프라인 두 마리 토끼를 다잡았다. 소비 기반의 주 무대가 온라인으로 옮겨졌음에도 불구하고 오프라인에서도 괄목할만한 성과를 얻었다.

실제 농협 경제지주가 자체적으로 분석한 결과, 농협 하나로마트의 올해 2월 18일~3월 17일 까지의 축산물 매출액이 지난해 같은 기간 보다 36.6%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한우고기의 경우 올해 설 이후 6주간이 전년도 설 이후 6주간의 비교했을 때, 농협 하나로마트 직영점은 전년대비 30.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각에서는 재난지원금 등이 온라인에서 사용이 어렵기 때문에 오프라인으로 소비가 집중되면서 한우산업이 호재를 맞았다고도 하지만 실제 소비자들의 한우에 대한 관심과 기호도가 높았기 때문에 이러한 결과가 타났다는 평이 주를 이룬다.

또 코로나19로 인해 언택트 소비가 일반화되면서 온라인쇼핑에 대한 소비자의 관심이 급증하면서 온라인에서도 톡톡한 효과를 누렸다.

한우는 직접 눈으로 보고 골라야 한다는 소비자들도 시대의 흐름에 따라 온라인마켓으로 눈을 돌렸고 온라인상에서의 한우 소비는 눈에 띄게 늘어났다.

관련 통계들에 따르면 대표 소셜 네트워킹 서비스를 기반으로 한 마켓컬리, 쿠팡 로켓프레쉬, 헬로네이처 등을 비롯해 대형 유통사들의 온라인 서비스인 SSG마켓, 롯데프리미엄푸드마켓 등 신선식품 리테일들이 앞 다투어 상품을 기획하고 시장에 내놓았고 괄목한 성과를 나타냈다.

이들은 올 한 해 동안 최대 8~50%까지도 소비가 늘어났으며 이중에서도 특수부위, 1++(9) 등 프리미엄 한우 시장의 성장세가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신선식품 매출에서 육류 카테고리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특히 올해의 경우에는 1월부터 11월 까지 매출이 최대 80%까지 늘어난 곳도 있다.

청탁금지법(김영란법)으로 주춤했던 선물세트 시장도 다시 살아나 힘을 보탰다.

코로나19로 인해 귀성보다는 집에서 명절을 보내는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선물세트로 마음을 전하게 되면서 한우 선물세트가 인기를 끈 것. 또 청탁금지법이 한시적으로 완화되면서 프리미엄 한우 선물세트 수요가 늘어나 매출이 크게 신장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소비처인 신세계 백화점은 추석 명절 기간 동안 한우 등 정육세트가 지난해 대비해서 36.3% 매출이 늘어나면서 선물세트 가운데 가장 높은 매출을 기록했다.

현대백화점도 같은 기간 37.4%가 증가한 가운데 롯데백화점도 34%가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프리미엄 선물세트 수요의 증가와 청탁금지법의 한시적 완화가 맞물리면서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한우가 1위를 재탈환하면서 한우 가격을 견인했다.

## 한우식당 파인 다이닝으로 진화

일식에서 주로 사용되는 오마카세가 프리미엄 한우 다이닝과 결합해 파인다이닝(fine-dining)으로 재탄생했다.

오마카세(お任せ)는 ‘맡긴다’는 뜻의 일본어로, 손님이 요리사에게 메뉴선택을 온전히 맡기고 요리사는 가장 신선한 식재료로 제철 요리를 만들어내는 것을 뜻한다. 즉, 셰프가 자신만





한우 외식의 형태가 단순 구이 문화에서 프라이빗 한 파인다이닝으로 진화하고 있다.

의 요리법으로 만들어낸 요리를 소수에게 선보이는 것으로 고급 식문화의 한 분야이다.

파인다이닝은 ‘훌륭하다’는 뜻의 ‘파인(fine)’과 ‘정찬’이라는 뜻의 ‘다이닝(dining)’을 결합한 ‘멋진 정찬’을 뜻하며 캐주얼다이닝보다 고급스러운 개념으로 통한다. 풀코스 요리나, 메인요리에 에피타이저와 사이드를 곁들이며 여기에 와인리스트를 갖추는 것을 파인다이닝이라 칭한다.

한우 오마카세 전문점은 본앤브레드. 설로인. 모통이우 ripe, W가나 우가나, 우텐더 등이 대표주자다.

한우 오마카세 전문점에서는 1인에 최소 10~ 25만원이란 고가의 비용을 지불해야 하지만 특별한 서비스로 한우를 맛볼 수 있기 때문에 파인다이닝을 선호하는 소비층들의 인기가 대단하다. 한우 오마카세 전문점은 최소 1달 이전에 예약을 해야만 식사를 할 정도.

이러한 인기에 힘입어 최근에는 특급호텔도 한우 오마카세 대열에 합류했다.

위커힐호텔은 숯불구이 전문점 명월관에서 특급호텔 가운데 최초로 오마카세를 선보였다.

유통사들과의 콜라보도 오마카세 인기를 실감하게 한다. 유통사들은 잇따라 콜라보 상품을 내놓기도 했다. 지난 추석 신세계 백화점은 모통이우 ripe와, 우텐더, 우가, 설로인등 유명 한우 오마카세와 세트 상품을 기획하고 50만 원대의 프리미엄 선물세트를 판매했다.

이들 선물세트는 판매 시작과 동시에 빠르게 완판 되는 진기록을 세우며 그 인기를 입증했다.

## HMR도 효과 ‘톡톡’

식문화가 바뀌면서 골칫거리거리가 된 부산물이 가정간편식으로 다시 주목받고 있다.

쌓여가는 부산물의 적체를 해소하고자 한우협회가 팔 걷고 나서면서 트렌드를 주도하고 있는 것. 한우협회는 코로나19로 집밥 수요가 크게 늘어나면서 소비자들이 간편하게 한우를 즐길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부산물 소비 활성화도 도모하기 위해 지난 5월 직접 부산물을 활용한 HMR(Home Meal Replacement; 가정식 대체식품) 제품 ‘한우 한 마리곰탕’을 런칭하고 NS 홈쇼핑 등을 통해 판매를 시작했다,

한우협회는 ‘한우 한 마리곰탕’을 시작으로 ‘한우 도가니 우족탕’, ‘한우 양곰탕’ 등을 이어서 출시하고 한우 변화한 소비트렌드에 대응하면서 한우 부산물의 연중소비를 통한 소 값 안정, 국민건강 증진하겠다는 계획이다.

최근에는 HMR에서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 RMR(Restaurant Meal Replacement, 레스토랑간편식) 제품들도 나와 눈길을 끌고 있다. 유명식당의 메뉴를 집에서 받아볼 수 있다는 점에서 소비자들의 선호도가 높아지고 있는 것.

코로나 19확산으로 ‘집에서 먹는 외식’ 문화가 생겨나면서 간편함과 전문점의 맛과 메뉴까지 겸비한 RMR 시장으로 확대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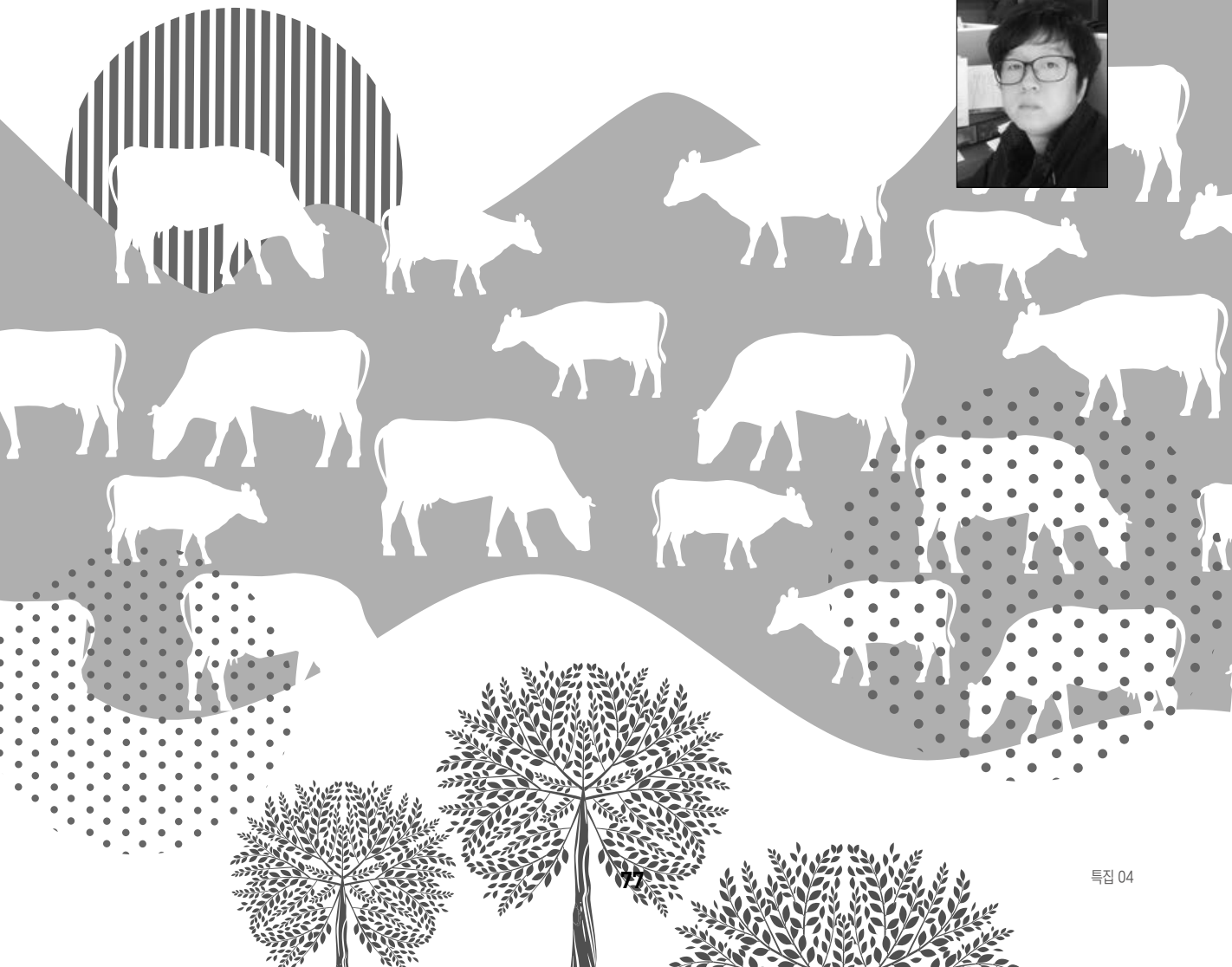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는 가정간편식 시장규모가 오는 2022년 5조원을 기록할 것이며, 이같은 추세를 이어갈 경우 향후 약 10년 후 국내 가정간편식 시장은 17조원 규모에 달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한우업계도 이에 발맞춰 한우 RMR 제품군도 라인업하고 있다. 갈비 전문점 송추가마골은 자사 브랜드들을 통해 ‘한우 불고기 전골’을 BHC의 한우 전문브랜드 창고43은 한우 프리미엄 도시락을 출시하는 등 가정간편식 시장에서 새롭게 찾은 활기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된다.

# 한우산업 생산 현장 규모화 가속

다양한 규모와 형태 농가  
공존하는 환경 가꿔야

이동일 \_ 축산신문 기자





## 사육두수 증가에도 가격은 상승세

연말부터 이어진 한우가격이 상반기 내내 이어졌다.

사육두수 증가로 인한 가격 하락이 시작될 것이라는 전망과 달리 한우평균경락가격은 kg당 1만9천원 후반대를 유지하는 모습을 보여줬다.

코로나19가 국내에서도 발생되고 또 확산되면서 온라인을 통한 가정 소비가 급격하게 증가했다.

발생 초기에는 외식소비 급감으로 소비가 어려움을 겪게 될 것으로 예상됐다. 물론 학교급식과 외식소비는 급격한 감소세를 보여줬다. 하지만 사회적 거리두기가 장기화되면서 한우고기는 가정소비에서 가장 큰 수혜를 받는 품목 중 하나로 부각됐다.

외식이 어려워진 상황에서 한우고기로 만족스러운 한 끼를 먹겠다는 소비자들이 빠르게 늘어났다. 외식소비의 주요품목인 로스용 부위(등심, 안심, 채끝, 갈비) 뿐 아니라 정육(양지, 우둔 등)의 소비도 늘었다. 외식에서 느껴지던 수입육과의 가격차 부담이 가정소비에서는 크게 낮아져 소비자들 사이에서는 ‘기왕 고기 먹을 거면 한우 먹자’라는 인식이 넓게 퍼져나갔다.

고품질의 단백질은 면역력 향상에 필수라는 소식이 더해지면서 한우 소비는 코로나19의 긍정적 수혜를 입는 품목이 됐다.

4~5월 시행된 긴급재난지원금은 한우 소비에 날개를 달아줬다. 냉랭하게 얼어 붙어있던 외식소비가 긴급재난지원금으로 급격히 회복되는 모습을 보였다. 당시 동네 정육점과 한우식당에서는 한우고기가 부족할 정도로 잘 팔렸다는 소식이 들려오기도 했다. 반면 많은 인원이 모이는 대형 마트는 상대적인 부진을 면치 못했다.

송아지 가격 또한 상승세를 이어갔다.

코로나로 인해 전국의 가축시장이 1달여 동안 임시 휴장했고, 생산현장에서는 원활한 밀소공급이 어려워지면서 송아지 가격은 점점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다.

1월 390만원대에서 시작한 6~7개월령 수송아지의 산지 평균 가격이 6월에는 450만원대까지 상승했다.

## 2020년 월별 한우산지가격

(단위:천원)

구분	한우							
	송아지 (4~5월령)		송아지 (6~7월령)		350kg		600kg	
	암	수	암	수	암	수	암	수
연평균	0	0	0	0	0	0	0	0
1월	2,840	3,246	3,239	3,959	3,513	3,542	5,895	5,672
2월	2,960	3,068	3,202	3,916	3,636	4,421	5,893	5,479
3월	0	3,132	3,299	3,960	4,689	0	5,943	4,983
4월	3,010	3,332	3,333	4,217	3,687	4,386	5,837	5,326
5월	0	3,554	3,483	4,347	3,864	4,325	6,015	5,536
6월	3,189	4,393	3,610	4,505	4,062	4,601	6,255	5,504
7월	3,196	3,426	3,459	4,532	3,912	4,168	6,051	5,171
8월	2,848	3,667	3,507	4,581	3,859	4,380	6,232	5,423
9월	2,571	3,733	3,481	4,510	3,648	4,299	6,101	5,420
10월	2,629	3,736	3,553	4,360	3,854	4,133	6,291	5,232
11월	3,180	3,348	3,552	4,286	4,158	4,182	6,430	5,429
12월	0	0	0	0	0	0	0	0

※자료: 농협 축산정보센터

한우유통 전문가들은 사육두수가 증가하면서도 가격이 상승한 이례적인 현상이라고 분석했다. 코로나19라는 변수가 한우 소비 측면에서만큼은 긍정적으로 작용했고, 이렇게 한우를 경험한 소비자들이 앞으로 더욱 자주 한우고기를 구매하는 소비층으로 자리를 잡게 될 수도 있다는 전망을 내놓고 있다.

하반기에도 한우 가격 상승의 기세는 꺾일 줄 몰랐다.

1만9천원대를 유지하던 한우평균경락가격은 7월 이후 2만원대를 돌파했다.

정부의 재난지원금이 소진된 이후 소비가 감소할 것으로 전망됐지만 추석명절이 이어지면서 소비는 더욱 탄력을 받는 모습을 보여줬다. 특히, 올해는 정부가 청탁금지법의 가액기준을 일시적으로 상향조정하면서 추석명절 한우소비에 한층 힘을 실어줬다.

11월 평균가격이 1만9천원대로 내려왔지만 연말 소비는 안정적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특히, 내년 설 명절이 2월 초에 있는 상황이라 12월 가격은 다시 kg당 2만원 선을 회복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 규모화 전업화 심화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한육우농가 수는 2005년 19만2천124호에서 올해는 9만3천63호로 약 10만농가가 감소했다.(통계청 2020년 9월1일 기준)

규모별로는 20두 미만 농가는 2005년 17만1천254호에서 2020년에는 5만570호로 12만호가 줄었다. 이에 반해 100두 이상 농가는 1천655호에서 7천999호로 급증했다.

2005년 이후 100두 이상 사육가구와 마릿수는 연평균 12.7%, 11.3%가 상승하고 있다. 반면 20두 미만의 사육농가와 마릿수는 연평균 7.7%, 4.2%가 감소하고 있다.

올해 역시 지난해보다 전체 사육농가수는 감소했지만 100두 이상 농가는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 한육우 사육가구 및 마릿수 변화

(단위: 천 마리, 가구,%p)

구분		1983년	1985년	1995년	2005년	2015년	2019년	2020년	연평균 증감률
계	가구	971,152	1,047,573	518,952	192,124	106,505	94,007	93,063	-6.1
	마릿수	1,940	2,553	2,594	1,819	2,909	3,237	3,396	1.5
20미만	가구	968,984	1,042,560	498,270	171,254	69,612	53,375	50,570	-7.7
	마릿수	1,845	2,340	1,880	777	452	390	379	-4.2
20~50	가구	1,806	4,052	18,224	14,770	21,038	21,999	22,453	7.0
	마릿수	50	116	507	450	667	705	721	7.5
50~100	가구	265	751	2,033	4,445	9,795	11,198	12,041	10.9
	마릿수	17	50	126	286	682	782	840	11.1
100이상	가구	97	210	425	1,655	6,060	7,435	7,999	12.7
	마릿수	28	48	80	305	1,108	1,361	1,456	11.3

※ 자료: 통계청





한우 생산 현장의 규모화가 매우 빨라지고 있다는 것을 읽을 수 있다. 이 같은 현상은 사육 형태에도 변화를 가져오고 있다.

과거 소규모의 농가는 대부분 송아지를 생산해 수익을 올리는 형태의 번식농가였다. 이들 농가가 절대다수를 차지하면서 한우산업에서 송아지를 공급하는 공급기지의 역할을 해왔다. 대규모 농가들은 이들에게 송아지를 구입해 키워 출하하는 비육 전문 농장이 다수였다. 하지만 지금의 대규모 농장들은 과거의 형태와는 다르다.

50두 미만의 농장들이 폐업 또는 규모화 되면서 송아지를 공급하는 역할을 기대할 수 없게 됐고, 일정 규모의 사육두수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자체적으로 송아지를 생산할 수 있는 암소 기반이 필수인 상황이 됐다.

전문가들은 규모화 일변도는 위험하다는 지적을 내놓고 있다. 한 전문가는 “소규모의 번식 농가가 비육농가보다 수익성이 낮다 보니 규모화를 통해 일관사육 형태로 변화됐고, 송아지 공급이 감소하게 된 비육농가들도 암소를 직접 사육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됐다. 효율성은 떨어지게 된다. 다양한 규모와 형태의 농가들이 원활하게 서로의 단점을 보완하고, 함께 공존하는 형태가 바람직할 것”이라고 말했다.

# 저능력 미경산우 비육지원사업 편람 안내

조해인 부장 \_ 정책지도국(내선 205)  
황남현 주임 \_ 02-525-1053(내선 204)

## 사업 개요

### 1) 사업 목적

- 미경산우 중 저능력 개체를 조기 비육 도축시킴으로써 암소개량 촉진
- 적정두수 유지를 위한 선제적 수급조절 대응과 신규 시장개척

### 2) 사업 주최 및 주관

- 주최 : 한우자조금관리위원회
- 주관 : 전국한우협회 중앙회, 시도지회, 시군지부
- 협조 : 축산물품질평가원, 한국종축개량협회, 이력제위탁기관

3) 사업규모 : 총 2만두(한우자조금지원개체 1만두 + 자율참여개체 1만두)

4) 지원조건 : 자조금 지원대상 및 자율참여개체 1:1 매칭시

자조금 지원대상에 한해 농가보전금 30만원 지급

## 사업 대상농가 및 개체 기준

### 1) 사업참여 기준

- 대상농가 : 3년평균(18~20년) 미경산우 출하두수가 30두 이하인 농가,  
(※ 3년동안(18~20년) 송아지 생산이력이 없는 농가는 제외)
- 대상개체
  - ① 약정대상 개체 : 2019.11.1.~2020.6.30. 8개월간 출생개체
  - ② 특이사항



- (1순위) 암소중 한우 유전능력평가를 통해 하위 30% 이내 선발 개체  
축산과학원이 평가한 아비(1/2), 외조부(1/4), 외외조부(1/8)의 육종가로 종개협 산출
- (2순위) 지부 현지확인 후 선발 암소 개체 : 이모색, 난폭우, 발육부진우
- (3순위) 미등록우 및 기초등록우
- ③ 참여두수(한도) : 1농가(농장식별번호) 20두 이내(한우자조금 지원개체)  
자율참여 개체수에 따라 1:1 매칭으로 참여 가능
- ④ 사업시행일(공문시행일) 기준 소유주 본인의 개체  
※ 양도/양수금지(소유주 사망, 폐업, 직계가족간 양도시에만 인정)
- ⑤ 제외대상  
- 프리마틴, 농장 소유주와 개체 소유주 불일치(위탁사육), 시행일 이후 구매개체는 사업 제외, 전년도 약정 미이행자(농가보전금 상계처리 동의시 약정가능)

#### ■ 2019년 암소사육두수에 따른 2020년 사업배정량

구 분	암소 사육두수	비율 (%)	2020년 도별배정			2019년 약정두수
			자조금 지원개체	자율개체	합계	
서울·인천·경기	32,533	7.0	701	701	1,402	1,041
강 원	34,899	7.5	752	752	1,504	399
충 북	37,589	8.1	810	810	1,620	663
세종·대전·충남	69,313	14.9	1,494	1,494	2,988	715
전 북	60,890	13.1	1,312	1,312	2,624	1,037
광주·전남	87,151	18.8	1,878	1,878	3,756	1,039
대구·경북	88,185	19.0	1,901	1,901	3,802	2,589
부산·경남	42,994	9.3	927	927	1,854	1,173
울 산	5,875	1.3	127	127	254	197
제 주	4,571	1.0	99	99	198	69
합 계	464,000	100.0	10,000	10,000	20,000	8,922

※ 신청접수 이후 신청이 저조한 시·도의 배정물량은 타 시·도로 배정 조정

## 2) 지원내용

- 농가보전금(30만원/두)

- 자조금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개체는 도축시점(36개월이내)까지 미경산우로 비육(송아지 생산금지), 소유주 변경이 불가(양도/양수 금지)하며, 이에 대한 농가 보전금을 1두당 30만원 지급하며, 중앙회는 이행여부를 전산시스템을 활용해 점검하여 위반시 농가보전금을 환수

- 사업수수료(사후관리비→사업수수료로 명칭변경)

- 농가대상 사업안내 및 약정 체결, 개체확인, 이력정보 조회 및 전산기록, 서류작성 등에 대한 비용 지급
- 중앙회는 시군지부로 사후관리비 지급(시군지부 통장으로 지급), 약정우 관리 등 시군지부의 사업책임 강화
- 사업수수료는 개체당 비용지급이 아닌 2개 농장 방문 비용 지급  
(방역상황 등 고려, 1일 2농가 출장(대상개체 통보한 농가를 방문))
- 지급단가는 농장의 총신청두수(자조금+자율)에 따라 4구간 차등 적용  
(2019년) 1차 사업관리비 2만원/두 →  
(2020년) 사업수수료 93,330원~129,330원/농장2개소 방문  
(사업수수료=여비+현장심사+개체정보관리+약정체결등)
- 사업수수료 지급단가(농장당 비용) : 여비+현장심사(개체정보관리)

※ (예) 총신청두수가 11~20마리인 2농가 현장심사시 1일 105,330원 지급  
= 여비(33,330), 심사관리비(72,000 = 36,000 + 36,000)

사업수수료					
여비	현장심사, 개체정보관리				합계
	10마리 이하	11~20마리	21~30마리	31마리 이상	
33,330원 일비 20,000원 식비 13,330원	30,000원	36,000원	42,000원	48,000원	93,330원 ~ 129,330원

## ■ 사업수수료 산출식

구분	방문농가				
방문 농가	신청규모	10마리 이하	11~20마리	21~30마리	31마리 이상
	10마리 이하	93,330	99,330	105,330	111,330
	11~20마리	99,330	105,330	111,330	117,330
	21~30마리	105,330	111,330	117,330	123,330
	31마리 이상	111,330	117,330	123,330	129,330

- 2차 사후관리비(1만원/두) : 삭제
  - 2차 사후관리는 중앙회에서 축산물품질평가원의 협조를 받아 이력제 정보를 토대로 2개월마다 1회씩 온라인 점검 진행(축산물이력제 활용)
- 현장확인 출장수수료 : 신설
  - 최초 심사 이후 약정 미이행 등으로 농장 방문 및 개체 확인 필요시 출장비 지급
    - 중앙회에서 시군지부로 요청시 1일 1농장당 45,330원선 출장비 지급
  - ※ 출장비 지급(출장관련 증빙자료 첨부, 여비 33,330+추가점검비 12,000)

### 3) 사업일정

- 신청서 접수기간 : 2020년 2월 말일까지
  - 도별 배정량 한도내 접수, 사업물량 소진시 접수종료
- 대상농가/대상개체 기준 확인 및 통보 : 3월 26일 예정
  - 축산물품질평가원 이력정보 조회 및 확인, 한국중축개량협회 대상기준 확인 후 약정대상 확정 및 통보
  - 확정 및 통보 개체에 대해서만 약정 체결
- 시군지부의 선정개체 확인 및 농가 방문 : 4월 23일 까지
  - 개체확인 및 약정체결, 농가보전금 신청
- 약정서 제출 : 4월 말까지
- 중앙회 농가보전금, 사업수수료 지급 : 5월 31일까지



- 서류 검토 및 사업수수료 지급
- 중앙회 전산점검 : 양수/양도, 분만, 폐사 여부 확인 후 약정 미이행시 농가보전금 환수
- 도축출하 : 개체별 36개월 이내
  - 2020년 참여개체의 출하계획

구분			가정
2020	미경산우	대상	'19년 11~'20.6월 출생, 2만두(1+1)
		도축시점	30개월령 순차적 도축('22.5월~'22년 12월)

### 03

## 사업 내용 및 절차

### 1) 사업 신청단계(신청서 접수)

- **(농가)** 사업 대상농가 및 개체기준에 본인 농장이 해당되는지 확인 후 본인 소유의 미경산우를 한우자조금 지원개체, 자율감축 개체로 1:1 구분하여 사업신청
  - 제출서류 : 사업신청서, 이력제 농장개체현황(개체별 소유주명 표기)을 시군지부에 제출
  - 농가기준은 이력제 위탁기관에 확인 가능
    - 3년평균(18~20년) 미경산우 출하두수가 30두 이하인 농가,
    - (※ 3년동안(18~20년) 송아지 생산이력이 없는 농가는 사업대상에서 제외)
  - 이력제 위탁기관으로부터 농장개체현황 출력 후 제출(소유주명 명기)
- **(시군지부)** 농가 사업신청서 신청사항 확인, 인적사항 및 개체이력사항 전산자료(엑셀파일)입력·취합, 신청서 제출

구분	확인내용
농가기준	○ 이력제 위탁기관에서 대상농가 해당여부 확인 - 3년평균(18~20년) 미경산우 출하두수가 30두 이하인 농가, (※ 3년동안(18~20년) 송아지 생산이력이 없는 농가는 사업대상에서 제외)
개체기준	1) 연 령 : 2019.11.1. ~ 2020.6.30. 출생개체 2) 특이사항 : <b>(1순위) 하위 30% 이내 선발 개체</b> (2순위) 이모색, 난폭우, 발육부진우 (3순위) 미등록우 및 기초등록우 3) 두 수 : 자조금 지원개체 1농가 20두 이내 (자율감축개체포함시 40두) 1:1 매칭여부 확인 4) 제외대상 : 프리마틴, 농장주와 소유주 불일치개체(위탁사육), 시행일 이후 양수/양도가 확인된 개체 등
제출서류	신청서 이력제 '농장개체현황' 제출(소유주 표기된 농장개체현황) 시군 신청농가 자료 입력 엑셀파일

● **(도지회)** 시군별 사업신청서 취합 및 제출

● **(중앙회)** 사업대상우 선정 및 통보

- 농가 사업신청 정보 입력 취합
- 농가 기준 및 개체정보를 축평원, 종축개량협회를 통해 확인
- 암소감축위원회 개최, 대상개체 선정, 향후 추진방안 논의

※ 위원회 구성 : 한우자조금, 협회, 농식품부, 축산과학원, 축산물품질평가원, 한국종축개량협회, 농협중앙회, 한우조합연합회, KREI, 학계로 구성

- 선정개체 및 미선정개체 도.시군으로 통보

**2) 선정개체 확인 및 약정체결(현장방문)**

● **(시군지부)** 중앙회로부터 통보받은 개체 및 농가에 대해서 현장 확인 (출장) 및 약정 체결, 농가보전금 · 사업수수료 신청

- 선정 개체 및 농가 방문 후 사업내용 상세 안내 및 준수사항(약정내용:양도/양수 금지, 분만금지 등) 설명, 대상개체 확인 후 사진촬영, 약정서 체결

※ 한우자조금 지원대상에 한해 약정체결, 자율감축 개체도 동일한 준수 의무가 있음을 상세히 설명

※ 약정 이행여부 평가, 패널티/인센티브로 활용

- 방역 등 상황을 고려하여 1일 2농장 이내로 방문
- 약정체결 개체의 전산자료(엑셀파일) 작성 제출
- 약정체결 개체의 농가보전금 신청서 작성

- **(농가)** 시군지부 조사자의 농장방문, 사업안내, 사진촬영, 약정체결 협조
- **(도지회)** 시군지부 농가보전금 신청서 취합 · 제출
- **(중앙회)** 약정체결 개체 서류 확인 후 농가보전금, 시군지부 대상 사업수수료 지급 및 지급사실 고지

### 3) 농가보전금 및 사업수수료 정산

- **(시군지부)** 농가 현장방문 후 약정서, 증빙사진 등 제출서류 제출
- **(중앙회)** 약정체결 개체 서류 확인 후 농가보전금, 시군지부 대상 사업수수료 지급 및 지급사실 고지
  - 농가보전금 정산방안 : 약정서 이상유무 확인 후 보전금 정산
  - 사업수수료 정산방안 : 시군지부별 약정체결 결과건수에 따라 사업수수료 정산금액을 중앙회가 산출, 시군지부로 수수료 지급

### 4) 약정해지(약정 미이행시)

- 약정해지 사유 발생시 중앙회에서 약정 해지 통보서 발송
  - ① 약정해지 사유
    - 약정개체의 양수/양도, 분만, 폐사 등
    - 개체의 성별정보 변경시(이력제 변경신고 등)
    -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전금 수령, 대상기준 미충족시, 기타 부정사례
      - 보전금 반환 예시 : 보전금 수령 후 송아지 생산, 선정개체 판매시, 개체 이력 정보 오류시(성별 전환신고 등)



## ② 처리절차

### - 보전금 반환 절차

- 중앙회에서 시군지부, 농가에 해지통보, 보전금 반환요청

☞ 시군지부는 농가에 보전금 반환 요청

☞ 농가 보전금 반환(계좌이체), 반환확인서 제출

### - 반환예외의 경우 : 반환예외확인서 제출

- 중앙회에서 시군지부, 농가에 제반서류 요청(수의사진단서 등)

(법정전염병, 긴급도축, 천재지변등으로 사업참여가 어렵거나 폐사)

## 5) 중앙회 사후관리

- 미경산 및 도축여부 확인 : 이력정보 2개월마다 1회씩 온라인 점검
  - 분만, 사망/도축, 양수/양도(소유주변경)
- 중앙회 정기점검 후 약정해지 개체에 대해서 시군지부, 농가에 통보
  - 농가대상 약정해지 통보서, 시군지부에 개체 정보 통보
  - 보전금 반환 조치 시행: 내용증명, 지급명령(소송절차) 등
- 선정개체는 약정체결 이후 농가보전금이 지급된 이후에는 개체 변경 불가
  - 추가 접수기간이 부여된 경우 기존 개체 취소후 추가 접수 가능

## 6) 사업 시행주체별 역할

### ■ 참여농가

- ① 농가보전금 수령확인 : 300,000원/두(1농가당 20두 이내 신청)
- ② 본인이 신청한 개체의 대상우 선정여부 확인
  - 신청 후 선정개체 정확히 확인, 농가보전금과 일치 여부 확인
- ③ 약정우 미경산우로 비육 출하 및 개체관리
  - 송아지 생산금지 : 분만시 보전금 반납
  - 양도/양수 금지 : 개체 판매시 보전금 반납
- ④ 약정우 개체에 특이사항 발생시 시군지부로 즉시 통보

- 폐사, 법정전염병, 긴급도축 등 개체 문제 발생시 시군지부에 신고
- 약정해지에 해당되는 경우 보전금 반환

⑤ 시군지부 조사자에 대해 현장관리 협조

■ 전국한우협회 시군지부

① 사업 안내, 대상기준 확인, 사업신청서 접수

- 신청농가 개체의 기준 확인, 확인 후 신청

② 대상농가 및 개체 약정 체결(현장방문)

- 중앙회에서 선정한 약정개체에 대해 현장방문 약정체결

③ 시군지부 소속 조사자 관리

- 농가에 사업안내, 신청서 작성안내, 저능력우 확인, 미경산 여부 확인 후 약정 체결, 농장현장방문 지원, 약정체결, 보전금 반환 등 제반업무

④ 보전금 반환

- 양수/양도, 분만 등 사업 이탈시 보전금 반환

⑤ 약정체결후 개체 이상시 농장 현장출장점검 협조

■ 전국한우협회 도지회

① 시군지부 자료 취합 및 도별 참여두수 관리

② 시군지부 특이사항 발생시 중앙회로 속히 통보

③ 관내 시군지부 관리 및 협조

■ 전국한우협회 중앙회

① 시도지회 시군지부 미경산우 사업대상 물량 배정

② 미경산우 비육 대상우 선정 확정 통보

③ 보전금 및 사업수수료 지급 및 반환 요청

④ 약정내용(양수/양도, 분만, 도축, 이력제특이사항 등) 주기 점검

⑤ 암소감축(미경산우)위원회 운영지원

⑥ 사업 총괄

## 미경산우 유통지원 사업

- 미경산우 브랜드 육성 및 미경산우 시장 조성
  - 경매 시 미경산우 별도 표기 등 제도 개선 추진
  - 협회 직거래유통망 참여업체와 미경산 한우 브랜드 출하 협의
  - 브랜드 제작, 유통단계 미경산우 판촉 지원
  - 미경산우 시식회 등 미경산우 인식 확산을 위한 홍보 행사





## 참여농가 준수사항

### ■ 약정내용

1. 약정개체는 출하시까지 송아지 생산을 금지한다.
2. 약정개체는 출하시까지 소유주 변경을 금지한다.
3. 약정기간은 계약일부터 도축일까지로 하며, 생후 36개월 이내 도축하여야 한다.
4. 미경산 자율참여로 등록한 개체도 미경산우로 사육하도록 노력한다.
5. 시군지부(도지회 등)의 농장 방문 및 현장 확인 관리에 적극 협조한다.
6. 약정우가 질병 등 사유로 폐사시 시군지부로 즉시 신고한다.
7. 약정 미이행시 농가보전금 반환에 적극 협조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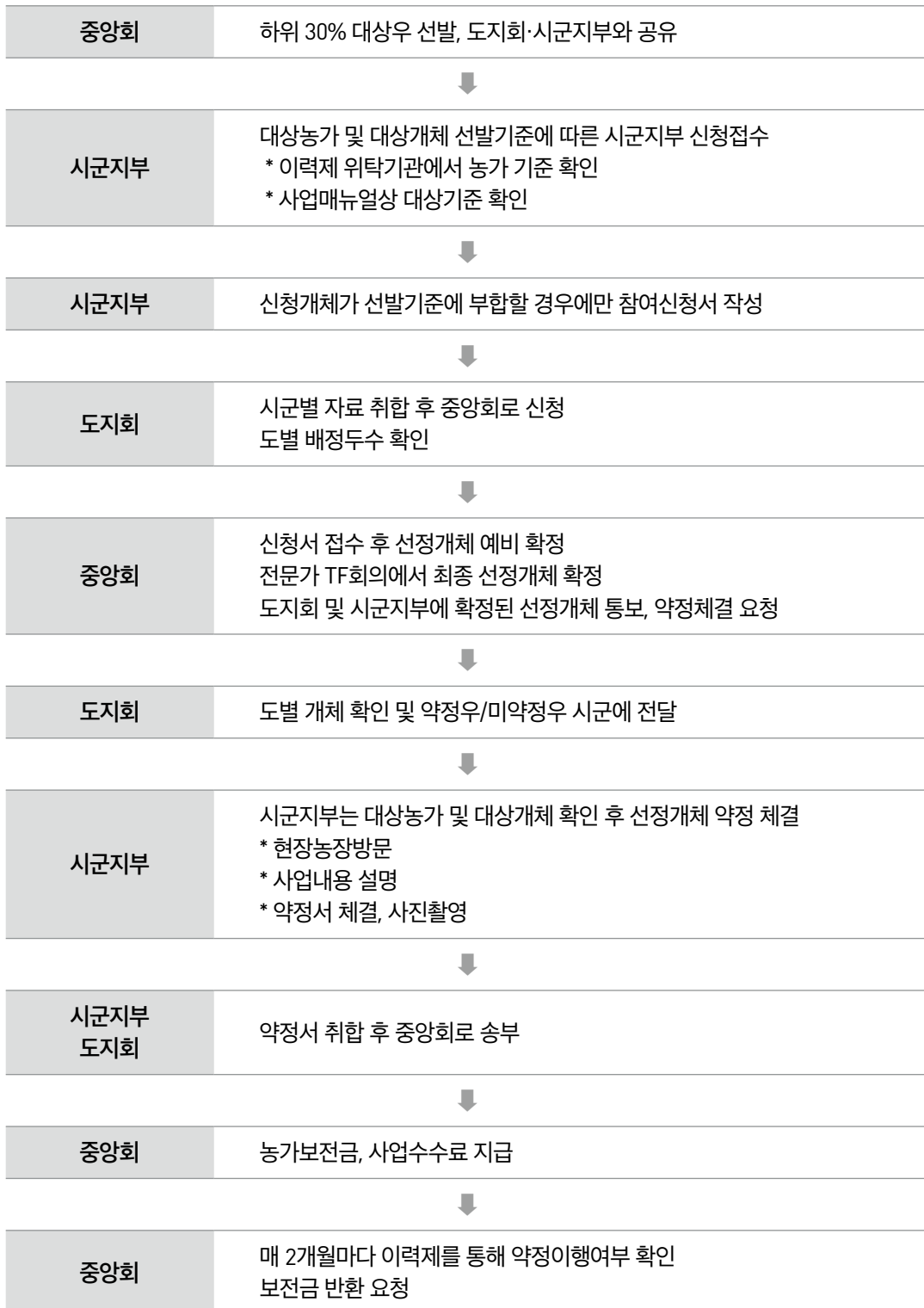
### ■ 보전금 반환

1. 농가보전금을 지급받은 개체의 양도/양수
2. 농가보전금을 지급받은 개체의 분만
3. 농가보전금을 지급받은 개체의 폐사(반환 예외 사유 해당시 면제)
4.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 보전금을 지급받기 위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기타 부정한 방법이 확인된 경우 등

### ■ 보전금 반환 예외

1. 법정전염병이나 국가시책에 따라 살처분된 경우
2. 수의사 처방에 따라 긴급도축이 결정된 경우
3. 기타 질병으로 수의사의 진단소견에 따라 폐사 인정된 경우  
(수의사 진단서 첨부)
4. 천재지변등의 이유로 폐사된 경우  
(재해 관련 확인서 등 증빙자료 첨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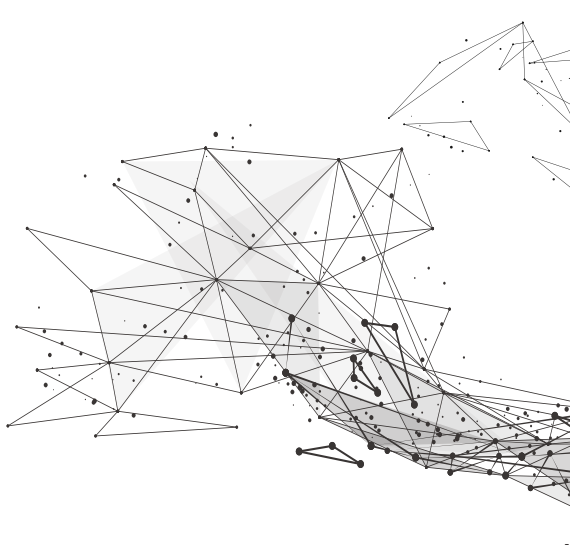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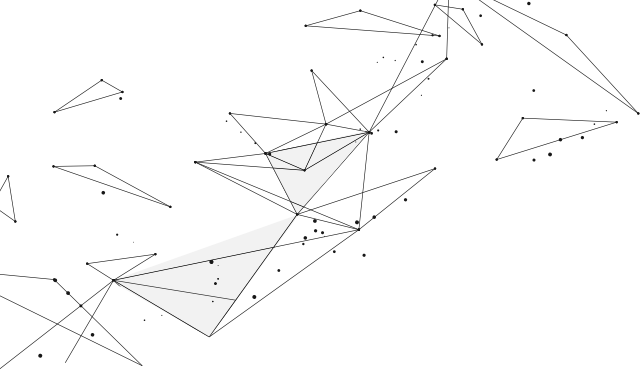
## 시행주체별 역할 및 사업절차



## 저능력 미경산우 비육지원 실시요령 요약

구 분	세부내용
농가보전금	30만원/두
사업수수료	2농장 방문시마다 93,330원~129,330원 (농장 참여두수에 따라 차등지급)
농가 최대 약정두수	20두 이내(한우자조금 지원 개체)
자율 참여 개체	20두 이내
사업 신청기간	2020년 2월 말일까지
출생기준	2019. 11. 1. ~ 2020. 6. 30. 출생개체
시군지부 사업신청서 접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업신청 대상 기준 확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상농가 : 3년 평균 미경산우 30두 이하 출하 농가 (※3년간 송아지 생산이력이 없는 농가는 제외)</li> <li>- 이력기관에서 농장개체현황 확인 후 대상농가 기준 확인</li> </ul> </li> <li>○ 선발기준에 부합하는 개체 접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출생 기준(생년월일) 확인</li> <li>- 1순위 : 유전능력 하위 30% 이내 개체</li> <li>- 2순위 : 이모색, 난폭우, 발육부진우</li> <li>- 3순위 : 미등록우 및 기초등록우</li> </ul> </li> <li>○ 참여신청서 작성 안내(농장 미방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상농가 기준, 대상개체 기준 확인 후 서류접수</li> <li>- 자율참여개체 확인</li> </ul> </li> </ul>
도지회에서 중앙회 신청	○ 시군지부에서 대상우를 신청 받아 도지회를 통해 중앙회로 신청
중앙회에서 도지회 공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중앙회에서 대상우 검토</li> <li>○ 전문가 TF에서 약정대상 선정개체 최종 확정</li> <li>○ 도지회를 통해 지부로 선정개체 공지</li> </ul>
시군지부 약정 체결	○ 선정개체가 속한 농장 방문 약정서 체결, 도지회 전송 - 사진촬영, 약정체결, 사업설명 안내 등
도지회 각 시군별 서류 취합 전송	○ 약정체결 개체 서류 도지회를 통해 중앙회로 전송
중앙회 농가 보전금 지급 사업수수료 지급	○ 중앙회에서 약정서 검토 완료 후 1달이내 농가보전금, 사업수수료를 지급
중앙회 사후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약정내용(양수/양도, 미경산여부, 폐사 등 이력제 변경사항) 주기적 점검</li> <li>○ 미이행시 보전금 반환 통지 등</li> <li>○ 생후 36개월령에 대상우의 도축여부 확인</li> </u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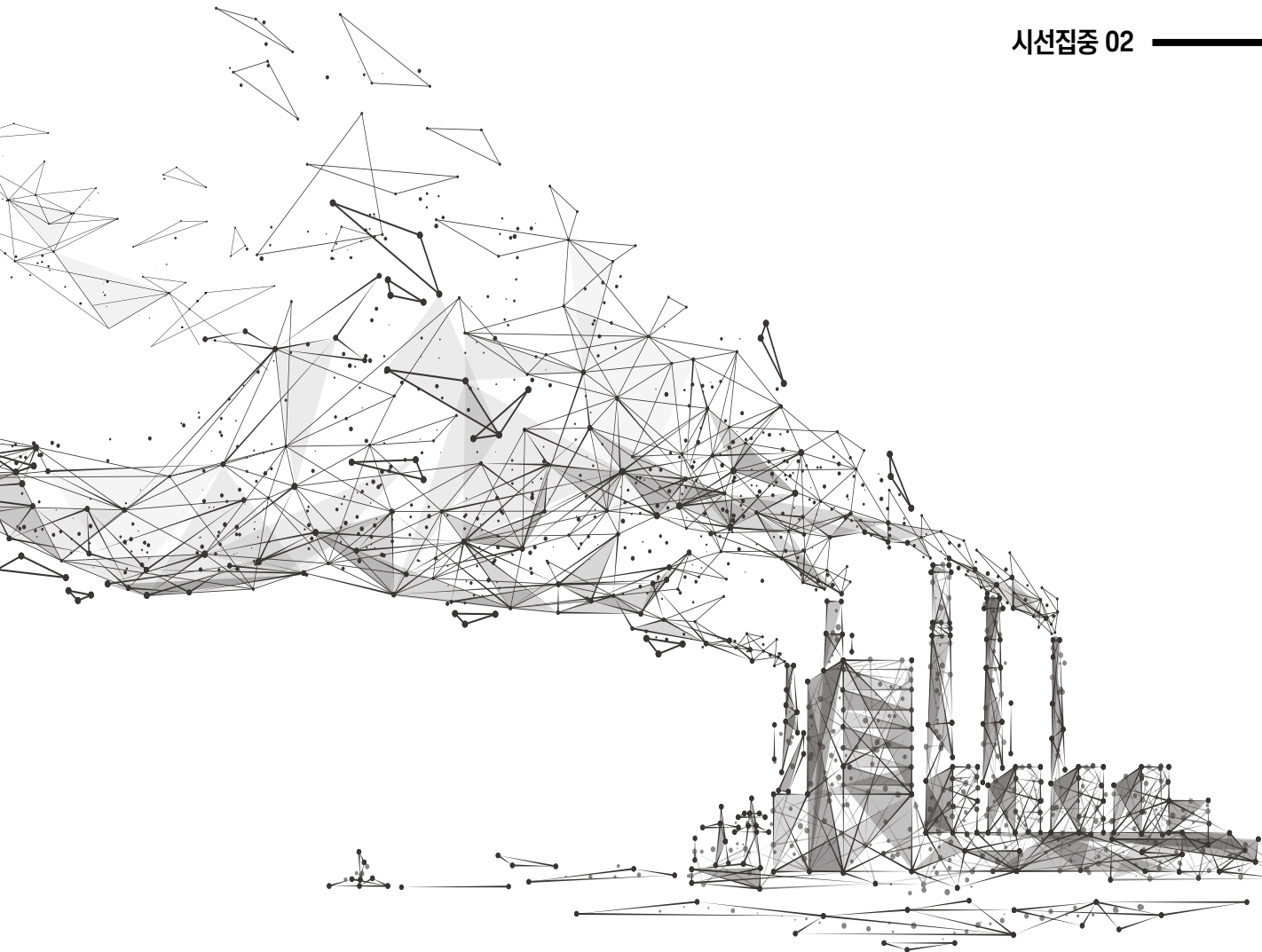
# 온실가스 문제 관련 농축산업 및 한우산업 대응 방안 모색

한민수 \_ 전국한우협회 한우정책연구소 책임연구원

## 1. 들어가며

농축산업은 온실가스로 인한 기후위기의 최대 희생양이다. 올 가을 세 번의 태풍과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입은 한우산업이 대표적인 사례다. 하지만 농축산업 또한 산업활동 중 하나이기 때문에 온실가스를 배출한다. 국제 기준으로는 논농업과 축산업이 주요 온실가스 배출원으로 지목되고 있다.

정부는 2050년까지 탄소 중립(온실가스 순배출량을 0으로 함)을 목표로 하고 있다. 미



국·유럽연합 등은 본격적으로 온실가스 감축 노력을 시작했으며, 향후 온실가스 문제는 중요한 통상 현안으로 떠오를 것으로 전망된다(월간 한우마당 '20년 11월호 참고). 이 때문에 농축산업 또한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선제적인 노력이 절실하다.

하지만 정확한 현황을 파악해야 올바른 해법을 찾을 수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18년 기준 제일 많은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분야는 에너지(86.9%), 산업공정(7.8%)이었던 반면, 농업(축산업 포함, 2.9%)과 LULUCF(토지이용·토지이용 변화 및 임업, -5.7%)는 온실가스 발생 비중이 미미하거나 오히려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나아가 축산환경 분야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농축산업 분야에서 온실가스를 추가로 감축시킬 수 있는 가능성 또한 커지고 있다.

온실가스를 포함한 축산환경 문제 개선은 축산농가 혼자만의 노력으로 해결될 수 없다. 정부와 지자체, 농·축협, 학계, 소비자를 포함한 이해당사자 모두가 책임 있게 참여하여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하고 일관성 있게 실천해야 할 때다.

## 2. 2020 국가 온실가스 인벤토리 분석 결과

환경부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www.gir.go.kr](http://www.gir.go.kr))는 “2020 국가 온실가스 인벤토리”를 발표하였다. 환경부는 1990년부터 2018년까지 산업 분야별 온실가스 발생량과 흡수량을 조사·발표해 왔는데, 2018년 국가 온실가스 총배출량은 727.6백만CO<sub>2</sub>환산톤으로 1990년과 비교하여 149.0%, '17년과 비교했을 때 2.5% 증가하였다. 특히 에너지와 산업 분야는 1990년 이후 28년 동안 배출량이 각각 163.1%, 178.7% 증가한 반면 같은 시기 농업에서는 1.0% 증가, LULUCF에서는 9.3% 감축된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가 ‘기후악당’이란 오명을 듣는 이유는 따로 있다. 중화학산업 중심인 우리나라 산업구조 특성상 제철, 석유화학, 반도체, 시멘트 생산, 제조·건설업에서 온실가스 배출량이 급증했기 때문이다(아래 표 참고), 정부가 2050년까지 탄소 중립을 달성하겠다고 선언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거대 재벌들은 석탄화력발전소 신설에 적극 나서고 있다(전국 총 7개소, 발전용량 7기가와트, 17조 3천억원 투입). 국가 전체적으로 온실가스 발생량이 줄기는커녕 오히려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에 놓인 것이다. 이 때문에 '17년 총 배출량 기준으로 우리나라는 중국, 미국, 인도 등에 이어 세계 11위, OECD 회원국 중에서는 5위, 1인당 기준으로는 6위를 기록하였다.

더욱 심각한 건 OECD 국가 가운데 온실가스 배출량 증가속도는 가장 빠르다는 점에 있다. 탄소 배출 감축을 중요시하는 선진국 연기금 등에서는 일찍부터 우리나라의 석탄 위주의 전력산업 구조 문제를 지적하며 한전에 대한 투자까지 제한하고 있을 정도다.



< 연도별 온실가스 배출량 >

(단위 : 백만톤 CO<sub>2</sub>eq.)

분야	'90년	'00년	'10년	'16년	'17년	'18년 (비중)	'90년 대비 증감률	'17년 대비 증감률
에너지	240.4	411.8	566.1	602.7	615.7	632.4 (86.9%)	163.1%	2.7%
산업공정	20.4	50.9	53.0	53.2	55.9	57.0 (7.8%)	178.7%	1.9%
농업	21.0	21.4	22.1	20.8	21.0	21.2 (2.9%)	1.0%	1.1%
LULUCF*	-37.8	-58.4	-53.8	-45.6	-41.5	-41.3 (-5.7%)	9.3%	-0.5%
폐기물	10.4	18.8	15.2	16.8	17.2	17.1 (2.3%)	64.7%	-0.7%
총배출량 (LULUCF제외)	292.2	502.9	656.3	693.5	709.7	727.6 (100%)	149.0%	2.5%
순배출량 (LULUCF포함)	254.4	444.5	602.5	648.0	668.3	686.3 (94.3%)	169.8%	2.7%

\* 자료: 국가 온실가스 인벤토리(1990~2018) 요약, 환경부

탄소 배출을 줄이려는 우리나라의 노력이 미흡하고 약속도 지키지 않는다는 국제사회의 비판은 갈수록 커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대규모 석탄투자를 한다든지, 탄소 배출량을 줄이는데 미온적인 회사들은 국제 투자회사들 사이에서 평판 리스크에 시달릴 수 있다고까지 경고하고 있다(KBS, MBC 보도 인용·참고).

### 3. 농축산업 분야 온실가스 배출 현황은?

농업 분야 '18년 배출량은 국가 총배출량의 2.9%에 해당하는 21.2백만CO<sub>2</sub>환산톤으로 '90년 대비 1.0%, '17년 대비 1.1% 증가했다. 육류 소비 증가로 장내발효는 51%, 가축분뇨처리에서 74% 증가한 반면, 논 면적 감소로 벼재배 배출량은 40% 감소한 것이다. 부문별 비중은, 벼재배 부문이 29.7%를 차지하며 농경지 토양 25.8%, 가축분뇨처리

< 농업 분야 세부 부문별 온실가스 배출량 >

(단위 : 백만톤 CO<sub>2</sub>eq.)

구분	'90년	'00년	'10년	'16년	'17년	'18년	'90년 대비 증감률	'17년 대비 증감률
4A 장내발효	3.0	3.4	4.3	4.3	4.4	4.5	51.0%	1.6%
4B 가축분뇨처리	2.8	3.9	4.8	4.5	4.7	4.9	73.5%	5.9%
4C 벼재배	10.5	8.9	7.8	6.7	6.5	6.3	-40.2%	-3.9%
4D 농경지토양	4.6	5.2	5.2	5.2	5.3	5.5	18.8%	2.6%
4F 잔물잔사소각	0.03	0.02	0.02	0.02	0.01	0.01	-45.5%	1.8%
합계	21.0	21.4	22.1	20.8	21.0	21.2	1.0%	1.1%

\* 자료: 국가 온실가스 인벤토리(1990~2018) 요약, 환경부

23.3%, 장내발효 21.1% 순이었다.

CF 분야 '18년 흡수량은 41.3백만CO<sub>2</sub>환산톤으로 '90년 대비 9.3% 증가, '17년 대비 0.5%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90년 이후 산림의 온실가스 흡수량이 증가함에 따라 '00년에는 최대 흡수기록을 세웠으나, 이후 산지 전용 면적이 늘어나면서 갈수록 감소하는 추세다. LULUCF 부문 내 흡수 총량은 41.3백만톤으로 대부분인 45.6백만톤이 산림지 부문에서 흡수되며, 배출원인 농경지 및 습지 부문은 각각 4.0백만톤 및 0.3백만톤을 배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 LULUCF 분야 세부 부문별 온실가스 배출량 >

(단위 : 백만톤 CO<sub>2</sub>eq.)

구분	'90년	'00년	'10년	'16년	'17년	'18년	'90년 대비 증감률	'17년 대비 증감률
5A 산림지	-38.2	-61.4	-58.8	-49.6	-45.6	-45.6	19.3%	-0.1%
5B 농경지	0.7	3.2	4.8	3.7	3.9	4.0	489.9%	3.9%
5C 초지	-0.5	-0.6	-0.2	-0.1	-0.03	-0.02	-96.9%	-45.8%
5D 습지	0.3	0.3	0.3	0.4	0.3	0.3	7.7%	-3.9%
합계(순흡수량)	-37.8	-58.4	-53.8	-45.6	-41.5	-41.3	9.3%	-0.5%

\* 자료: 국가 온실가스 인벤토리(1990~2018) 요약, 환경부

## 4. 기후변화 및 온실가스 관련, 농축산업 대응 방안

적어도 우리나라 현실을 고려한다면, 농축산업 분야가 온실가스 배출의 주범이라는 명제가 성립하기는 어렵다. 열대우림을 개간하고 대량의 화학비료와 농약을 사용하여 농후사료용 작물(옥수수, 콩 등)을 재배하여 소에게 먹이는 국가들의 온실가스 배출 책임이 더 크다. '17년 기준 전 세계 소 사육두수 14억 9,169만두 중 우리나라는 겨우 343만두(한우, 육우, 젖소 포함), 사육두수 비중으로 0.2%에 불과하다. 소를 키우는 모든 국가에 온실가스 배출 책임을 똑같이 묻어서는 안 되는 것이다.

하지만 2015년 채택된 파리기후협약<한우마당 '20년 11월호 참조>에 따라 미국·유럽 연합 등 선진국들은 우리나라에 온실가스 감축 압박을 더욱 강력하게 요구할 가능성이

높다. 이에 정부는 올해 2월 ‘2050 저탄소 사회 비전 포럼’이 제출한 5개 검토안(아래 표 참고)을 중심으로 12월까지 장기 저탄소전략을 마련하겠다는 방침을 세우고 있다.

205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1~5안)

구 분			‘17년 현황	2050년 목표				
				제1안	제2안	제3안	제4안	제5안
국가	배출량(백만톤)		709.1	178.9	222.0	279.5	355.9	425.9
	감축률(‘17년 대비)		-	75%	69%	61%	50%	40%
부문별	전환	배출량	252.3	24.8	28.9	71.4	75.6	125.3
		감축률		90.2%	88.6%	71.7%	70.0%	50.3%
	산업	배출량	259.9	89.7	124.1	132.2	200.7	211.1
		감축률		65.5%	52.3%	49.2%	22.8%	18.8%
	건물	배출량	52.8	17.5	18.8	20.3	21.4	22.5
		감축률		66.8%	64.4%	61.6%	59.5%	57.3%
	수송	배출량	98.3	26.3	28.8	33.8	36.0	40.0
		감축률		73.3%	70.7%	65.7%	63.4%	59.4%
	폐기물	배출량	16.8	9.1	9.4	9.6	9.8	10.0
		감축률		46.1%	43.9%	43.2%	41.9%	40.7%
	농축 어업	배출량	24.1	21.8	22.2	22.5	22.8	22.8
		감축률		9.5%	7.8%	6.6%	5.5%	5.4%
	탈루* 등	배출량	4.8	7.3				
	산림	흡수량	-	17.6	17.6	17.6	17.6	13.0
배출 원단위	GDP당(톤/백만원)		0.46	0.07	0.08	0.10	0.13	0.16
	인당(톤/인)		13.8	3.6	4.5	5.7	7.2	8.6

\* 탈루 : 석탄·석유·천연가스 등 화석연료의 연소과정이 아닌 채광·생산·공정·정제·운송·저장·유통 과정에서 빠져 새어나가는 온실가스를 의미

위 표에 의하면 농축어업 부문은 ‘17년 기준 2,410만CO<sub>2</sub>환산톤의 온실가스를 배출한 것으로 추정되었는데, 2050년에는 2,180만(제1안)~2,280만CO<sub>2</sub>환산톤(제5안)까지 줄여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17년 기준 배출량에서 최소 5.4%~최대 9.5%까지 감축해야 함을 의미하므로 결코 만만치 않은 목표라 할 수 있다.

소 반추위 내 장내발효 및 퇴비 부숙 과정에서 발생하는 메탄가스는 이산화탄소에 비해 200배가 넘는 온실효과를 일으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선도적인 한우 농가들은 우분 퇴비를 농지에 환원하고 조사료 작물을 재배하여 소에게 먹이고 있다.

이미 한우농가 스스로 탄소 중립에 가까운 방법으로 경축순환농업 실현을 위한 노력을 추진해 온 것이다. 이와 더불어 적절한 사양관리를 통한 메탄가스 발생 억제 기술, 가축 분뇨의 친환경 처리 방법도 학계 및 관련 업계를 중심으로 계속 발전해 오고 있다. 정부(농식품부, 환경부 등)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통해 문제 해결에 나서야 한다.

우리 협회는 미경산우 비육지원사업을 포함하여 농가소득 보전은 물론 환경 보호를 고려한 적정사육두수 유지 방안을 꾸준히 요구해 왔다. 송아지생산안정제 발동 요건 개선 및 비육우경영안정제 도입과 같은 확실한 농가경영안정정책을 시행하면서, 민간 자율로 사육두수를 사전에 조절할 수 있는 시스템을 확고히 구축하자는 것이다.

이와 같은 우리 협회 요구사항을 현재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축산 소분과에서 논의 중인 '축산농가 경영안정화 방안'에 적극 반영하여, 정부 정책을 개선시키기 위해 노력해 나갈 것이다.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을 위해 농업과 제조업이 적극 협력·추진해야 할 과제도 많다. 이산화탄소 및 미세먼지 저감 효과가 탁월한(옥수수 66배, 일본삼나무의 7배) 케냐프(양삼) 재배·활용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케냐프를 소의 조사료용으로 활용하기에는 문제점이 많지만(기호성이 떨어지는 어려움 등으로 인해), 미국에서는 종이(펄프)나 바이오 플라스틱 등 다양한 상품이 개발·판매되고 있음을 참고하여, 정부가 적극 나서 국책연구 및 관련 기술 개발을 통한 기업 이전 등을 통해 활로를 적극 모색해 나가야 한다.





# 농업계 최초 한우사랑상품권발행 초대박 행진

한우협, 제로페이(한국간편결제진흥원)와 업무협약  
5억 원 상품권 '이틀' 만에 매진...소비촉진 새 장 열어  
송년맞이 10억원 재발행, 하루 만에 완판

전국한우협회 × zero pay

# 한우사랑 상품권 10% 할인

제로페이에서 한우사랑모바일상품권을  
10% 할인된 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는 기회!

한우사랑상품권  
한우소비촉진 활성화를 위한  
한우상품권

zero pay

10% 할인

판매기간 : 2020. 12. 14 ~ 12. 22

상품권 구매하기      이용가능 가맹점 확인

한우사랑모바일상품권은 100%한우만 취급하는 우리한우 판매점에서 사용가능합니다.(사용기간 1년)  
제로페이 부분에 예산소진 시 조기마감할 수 있습니다.

농업계 최초로 제로페이 상품권을 발행한 전국한우협회의 한우사랑상품권이 최고의 인기를 실감하고 있다. 11월 1일 대한민국이 한우먹는날 비대면 한우소비 이벤트로 기획됐던 한우사랑상품권은 뜨거운 관심 속에 출시되자마자 품절됐다. 대한민국 한우먹는날을 기념해 발행된 상품권이 빠른 시간에 품절돼 아쉬웠다는 목소리를 반영하여 송년이벤트로 2

배 규모인 10억원을 발행했지만, 이역시 하루만에 품절현상을 맞았다. 한우사랑상품권의 초대박 인기는 소비촉진 행사의 변화 등 많은 시사점을 주는 현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 11월 1일 ‘대한민국이 한우먹는날’ 계기

우리 협회는 지난 10월 30일 한국간편결제진흥원과 한우소비촉진과 제로페이활성화를 위한 ‘한우사랑상품권발행’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소상공인 결제시스템인 ‘제로페이’를 운영하는 한국간편결제진흥원이 민간단체는 물론 농민단과 업무 협약을 체결한 것은 이번이 처음 있는 일이다.

‘한우데이’로도 불리는 11월 1일 한우먹는날은 2008년 선포되어 올해로 13회째를 맞은

가운데 올해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비대면 소비촉진 행사를 치르게 되면서 소비자들에게 한우를 저렴한 가격에 즐길 수 있도록 지원하는 새로운 소비 활성화 방안으로 기획됐다.

업무협약을 통해 발행된 ‘한우사랑 상품권’은 5만 원 권과 10만 원 권 등 각각의 상품권 발행액의 20%를 할인된 가격으로 판매했다. 소비자들에게 한우협회가 20%의 한우고기 할인을 직접 지원한 셈이다.

## 한우사랑상품권 발행 ‘이틀’ 만에 매진

11월 1일 대한민국이 한우먹는날 이벤트 때와 달리 송년 이벤트는 2배 규모인 10억원을 발행하면서 할인규모는 10%로 낮췄음에도 하루만에 품절기록을 세웠다.

한우사랑상품권은 제로페이 앱에서 11월 2일 오전 10시부터 발행에 돌입해 당초 준비된 상품권 5억 원어치(할인지원금 1억원)가 단 이틀 만에 매진되는 등 큰 인기를 끌었다.

특히 이번 한우사랑상품권이 100% 한우만 취급하는 전국의 ‘우리한우판매점’ 중 168 곳에서만 사용할 수 있다는 다소 제한적 여건임을 감안할 때 ‘한우’와 ‘상품권’의 조합이 얼마나 매력적인지 가늠할 수 있게 해주는 대목이다.

협회는 한우농가들의 든든한 우군한 우리한우판매점에 대한 차별화된 혜택과 지원을 집중하기 위해 한우사랑상품권 사용처를 제한적으로 사용하는 방안을 고안했다.

실제로 상품권발행 소식이 알려지면서 우리한우판매점에 대한 소비자들의 문의는 물론 한우전문판매점들의 인증점 문의가 쇄도하는 등 한우인증점 사업 활성화로 연결될 수 있을 것인지 기대되고 있다.

여기에 제로페이와 가맹을 맺지 않은 우리한우판매점의 경우 제로페이 가맹점을 새롭게 신청하는 등 이번 협약이 양 기관 모두에게 긍정적 효과를 가져 온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김홍길 한우협회장과 윤완수 한국간편결제진흥원 이사장이 지난 10월 30일 한우소비촉진과 제로페이활성화를 위한 '한우사랑상품권 발행' 업무 협약을 체결한 뒤 관계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 소비자 신뢰 바탕 '한우소비 활성화' 이끈다

상품권을 통한 한우할인판매 방식은 그동안 대규모 장소를 섭외해 한우고기 축제를 개최하거나 또는 대형유통점과 백화점, 농축협 등 오프라인 유통망을 활용해 진행했던 기존과는 완전히 다른 개념의 소비촉진 방식이다. 행사 기획, 섭외, 마케팅, 결산 등의 복잡한 과정이나 인력투입 없이 소비자들에게 직접적인 할인혜택의 기회를 부여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어 보인다.

더욱이 대형유통점들과 농축협의 할인행사는 행사를 지원하는 주체가 한우협회, 한우자조금임에도 불구하고 유통매장들이 중심이 되다보니 농가들의 정성으로 모아진 자조금의 지원 성격이 묻히는 등 퇴색되는 부분도 적지 않았다.

하지만 한우사랑상품권은 한우협회가 발행주체가 됨으로써 한우농가들이 소비자들에게 직접적인 할인혜택을 제공하고 전달하는 인식을 심어줄 수 있다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이번 협약을 통해 협회는 우리한우판매점에 대한 이미지를 제고할 수 있는 다양한 사업들을 기획, 진행하는 한편 한우에 대한 소비자 신뢰를 바탕으로 한우소비 활성화를 이끈다는 계획이다.

특히 한우사랑상품권에 대한 소비자들의 높은 관심을 확인한 만큼, 상품권 사용처 확대방안 등을 고민해 한우고기 소비저변을 더욱 확대한다는 목표다.

김홍길 한우협회장은 “국민들이 한우를 더욱 저렴하게 찾고 즐기는 새로운 방법으로 한우사랑상품권을 발행하게 됐는데 큰 인기와 성원 속에 마감됐다는 점은 물론 새로운 한우고기의 소비촉진 방안을 찾았다는 점에서 매우 고무적으로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한우가격을 절감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윤완수 한국간편결제진흥원 이사장은 “소상공인들의 카드 수수료 부담 완화를 위해 개발된 제로페이가 한우농가들의 대표인 한우협회와 협약을 맺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면서 “앞으로 제로페이와 한우사랑상품권의 지속적인 연계를 통해 한우농가와 소상공인, 소비자 모두에게 힘이 될 수 있도록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사료 원료곡 가격 ‘폭등’ 내년 사료가격 ‘비상’

중국, 기상악화 속 돼지 사육두수 증가...곡물수입 급증  
주요 곡물 수출 국가들 생산량, 예상치 밑돌 듯



지난해와 올해 비교적 안정세를 이어가던 사료용 곡물 가격이 최근 수급 불안 영향으로 가격이 요동치면서 관련업계가 대응 방안에 부심하고 있다.

사료용 국제 곡물 가격은 주요 곡물 수출 국가들의 당초 예상치 보다 낮은 생산량이 점쳐지고 있는 가운데 최근 중국의 사료용 곡물에 대한 폭발적인 수요 및 수입 증가로 최근 몇 년간 단기간으로는 유례가 없을 정도의 폭증세를 보이고 있다. 이같은 추세가 이어질 경우 내년 상반기부터 사료 가격 인상이 두 자리 수에 달할 수 있다는 우려 섞인 전망이 나온다.

## 옥수수 등 주요 사료용 곡물 가격 20% 이상↑

관련업체에 따르면 사료용 주요 원료의 수입단가는 올해 평균 톤 당 201불 가던 옥수수의 경우 내년 1~4월 도착도 평균 가격이 244불로 21.4% 뛰었다.

톤 당 231불에 거래됐던 소맥의 경우 5월말 도착 기준이 266불로 15.2% 상승했으며, 올해 들어 하향 안정세를 보였던 대두박의 경우 내년 1~5월말까지 평균 도착도 가격이 454불로 '20년 평균 가격 358불 대비 무려 26.8% 상승했다.

부원료의 가격도 상황은 마찬가지다.

단백피와 팜박, 야자박 등의 경우 현재 내년 1월 도착분에 대한 구매가 완료된 가운데 단백질과 팜박은 각각 260불과 173불로 올해 평균가격인 207불과 150불 대비 각각 25.6%, 15.3% 올랐다.

구분	'19년 평균	'20년 평균	'21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평균	전년 대비(%)
옥수수	200	201	232	240	253	252	(240~250)	-	244	21.4%
소맥	238	231	-	-	266	-	266	(270~275)	266	15.2%
대두박	378	358	-	449	-	471	441	(440~450)	454	26.8%
단백피	171	207	260	(255~260)	-	-	-	-	260	25.6%
팜박	131	150	173	(178~183)	-	-	-	-	173	15.3%
야자박	193	215	222	(225~230)	-	-	-	-	222	3.2%
채종박	245	256	-	(300~305)	-	-	-	-	303	18.3%
카사바	163	173	197	(195~200)	-	-	-	-	197	13.9%
소맥피	221	199	216	(220~255)	-	-	-	-	216	8.5%

자료: 주요 사료 수입 원료가격 동향, 국내 도착기준, 단위: 달러/톤, 괄호안은 추정가격.





미국산 옥수수를 실은 7만톤 규모의 선박이 당진평택항에 정박해 있는 모습.

## 국제 곡물시장의 블랙홀 ‘중국’

사료용 원료들의 가격 상승의 결정적 배경은 중국에 있다.

중국은 지난 1월 미·중 1단계 무역합의를 이행하기 위해 미국산 농산물 구매량을 의도적으로 늘리고 있는 부분이 적지 않지만 홍수, 태풍 피해 등 직접적인 수요증가와 보다 많은 연관이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최근 중국은 지난 2018~19년 살처분 한 돼지의 재입식이 시작되며 올해 말 돼지사육두수가 전년대비 6천만마리 이상 증가한 3억 7천만마리로 예상되면서 ‘세계적인 중국발 옥수수 블랙홀’ 현상이 가속화하고 있다.

이처럼 내수용 곡물 수요가 크게 늘어난 상황이지만 올해 유례없는 폭우와 태풍의 영향으로 자국 내 생산량이 수요량을 감당치 못하면서 폭발적 곡물 수입으로 이어지고 있다. 실제로 중국은 올 여름 벼 생산량의 주산지인 남부지방에 두 달여 넘게 호우가 집중된 데 이어 비피해가 거의 없었던 북부지역의 곡창지대인 동북3성(요녕성, 길림성, 흑룡강성)에 지난 8월 보름간 태풍이 3개가 연달아 지나면서 옥수수와 밀밭이 물에 잠기는 등 큰 피해를 입어 사료용 곡물 수급에 비상이 켜진 상태다.

중국의 수급 상황 악화는 엄청난 양의 수입으로 연결되며 세계 곡물 시장을 뒤흔들고 있다.

관련업계에 따르면 지난 9~10월 한 달 간 중국에서 수입한 미산 옥수수는 무려 1055만 톤으로 지난 1년간 수입물량('19.9~'20.8) 210만 톤 대비 845만 톤 늘었다.

800~900만 톤은 우리나라가 외국에서 수입하는 연간 사료용 곡물 수입물량에 달하는 수준의 엄청난 량이다.

중국의 대두 수입 역시 크게 늘어 9~10월 한 달 간 미산 대두 2500여 만 톤을 수입해 갔다.

지난 1년('19.9~'20.8)간 수입했던 미산 대두물량(1600만 톤)에서 무려 870만 톤이 증가했다.

이 뿐만이 아니다. 중국은 지난 10월 우크라이나 산 옥수수 7백만 톤을 추가 구매하는 등 중국의 옥수수 수입량은 한 달 간 무려 1700만 톤에 달한 것으로 집계됐다.

## 주요곡물 수출국가들 생산량, 예상치 밀들 듯

곡물시장을 좌우하고 있는 중국의 영향력에 대해 세계의 이목이 집중된 가운데 미국과 우크라이나, 남미 등 주요 곡물 수출 국가들의 생산량은 기상 불균형 등의 영향으로 당초 예상치를 밀들 것으로 전망돼 가격 전망을 더욱 어렵게 하고 있다.

미국과 우크라이나 등 주요 곡물 수출 국가들의 생산량은 전년 대비 크게 늘어날 것으로 전망됐었으나, 연말 추정 생산치는 당초 전망치를 밀들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미국의 옥수수 생산량 전망치는 지난 6월엔 4억 600만 톤이었으나 지난 10월말엔 3억 7400만톤으로 감소했다. 이는 최대 전망치 대비 3200만 톤이나 감소한 것이다.

우크라이나의 옥수수 생산량 역시 지난 6월 3900만 톤으로 예상됐으나, 10월엔 3650만 톤으로 조정됐다. 이 역시 최대 전망치에 비해 250만 톤 감소했다.

여기에 아르헨티나 등 남미 수출국가 역시 라니냐 현상 등 일기악화로 파종작업이 지연

되고 있어 공급량 감소 배경이 되고 있다. 실제로 아르헨티나의 파종 진척률은 29.8%로 전년 동기대비 10.2%p 감소했다.

다만, 최근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 환율에 업계는 기대를 걸고 있지만, 중국발 곡물 사재기 현상이 워낙 극심한데다 환율역시 외국인들의 국내 주식 매도세 지속으로 혼조세를 보이며 변동성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돼 이마저도 안심할 수 없는 분위기다.

## 국제 곡물 수급 비상…가격 불안정세 지속될 듯

중국의 호우피해에서 비롯된 국제곡물수급 비상과 가격 인상은 당장에 내년 상반기 국내 사료업체와 축산농가들에게 직접적인 영향이 불가피 할 것으로 전망된다.

가격이 크게 상승한 원료곡들의 경우 당장 2021년 1월부터 사료 생산에 투입돼 원가에 반영되기 때문이다. 단순한 원가 계산만을 놓고 봐도 옥수수과 소맥, 대두박 등 주요 원료곡 가격은 하반기 사료원가대비 15~20% 이상 인상된 가격으로 생산된다.

더욱이 내년 상반기면 당초 우려됐던 한우의 공급과잉이 본격화 하는 시기와 맞물릴 가능성이 높아 한우 가격 하락과 사료가격 인상 등 한우농가들이 이중고에 시달릴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김영원 한우협회 정책홍보국장은 “2012년 이래 최저점 수준을 형성하며 안정적 가격을 이어갔던 국제 옥수수 거래가격을 비롯한 주요 원료곡 가격의 수급 불안과 가격 인상이 심상치 않은 수준을 이어가고 있다”면서 “해까지 전반적인 소비호조와 수급안정으로 나름의 특수를 누렸던 한우농가들은 내년에 다가올 경영 위기에 대비해 생산성 향상과 생산비 절감 등 경영 안정을 위해 다양한 부분에서 고민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축산관측은 한육우, 젖소, 돼지, 산란계, 육계, 오리 등 6개 축종에 대해 실시됩니다. 육계 관측은 매월 25일에 발표되며 그 외의 축종에 대한 관측은 매분기(2,5,8,11월) 25일에 발표됩니다.

## 사육

### 2022년까지 한우 사육 마릿수 증가세 지속

\* 중장기 전망 시 25년까지도 한우 사육 마릿수 증가 추세

- 가임암소수 증가로 송아지 생산이 늘어  
한우 사육 마릿수 증가세 지속
- 2020년 한우 사육 마릿수는 가임암소  
마릿수와 1세 미만 마릿수 증가로 전년  
대비 4.9% 증가한 320만 6천 마리
  - 1세 미만 사육 마릿수는 전년 대비 3.9%  
증가한 94만 1천 마리, 가임암소는  
4.4% 증가한 155만 마리
- 2021년 328만 1천 마리(전년 대비 2.3%  
증가), 2022년 332만 3천 마리(1.3% 증가)

## 도축

### 2021년 1분기 이후 도축 마릿수 증가폭 확대

- 2020년 도축 마릿수는 사육 증가로  
전년(76만 5천)과 평년(74만 8천)대비  
증가한 77만 7천 마리
  - 4분기(10~12월) 도축 마릿수는 19만  
1천 마리로 전년 동기 대비 5.0% 감소  
예상
- 2021년 도축 마릿수 84만 2천 마리로  
2020년 대비 증가
  - 1분기(1~3월) 도축 마릿수는 19만 5천  
마리로 전년 대비 3.4% 증가
  - 2분기 이후 도축 마릿수 증가폭 확대  
하며 전년 대비 7~16% 증가
- 한우 도축 마릿수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22년 89만 5천 마리

- \* '21.1분기 송아지 입식 시 도축이 예상되는 '23.1분기 출하량 증가로  
도매가격 하락 예상 ⇒ 신중한 입식결정 필요
- \* 한우 사육 마릿수 조절을 위해 자율적 암소 감축 필요



## 수급 및 가격 동향

## 사육 마릿수

## 9월 한우 사육 마릿수 전년 대비 증가, 가임암소 증가, 육우 증가

- 한육우 사육 마릿수: 339만 6천 마리(전년 대비 3.9% 증가)
  - 한우: 323만 7천 마리(전년 대비 3.9% 증가)
  - 한우(가임암소): 154만 3천 마리(전년 대비 4.7% 증가)
  - 육우: 15만 9천 마리(전년 대비 4.2% 증가)
- 한육우 사육 농장수: 9만 3,063농장(전년 대비 1.4% 감소)
- 농장당 사육 마릿수: 36.5마리(전년 대비 5.3%(1.9마리) 증가)

## 한육우 연령별 사육마릿수와 사육 농장수

단위: 천 마리, 천 가구, %, 마리

구분		2018년	2019년				2020년			증감률
		12월	3월	6월	9월	12월	3월	6월	9월	전년 대비
한우 사육 마릿수	1세 미만	861	870	890	898	906	922	938	911	1.4
	1~2세	825	824	826	838	852	862	878	888	5.9
	2세 이상	1,276	1,214	1,377	1,379	1,321	1,254	1,410	1,438	4.3
	총계-㉑	2,962	2,908	3,094	3,116	3,078	3,038	3,226	3,237	3.9
가임암소 마릿수		1,427	1,396	1,420	1,474	1,484	1,445	1,480	1,543	4.7
육우 사육 마릿수-㉒		151	151	148	153	159	160	157	159	4.2
한육우 사육 마릿수 - ㉑+㉒		3,113	3,059	3,231	3,269	3,237	3,197	3,383	3,396	3.9
사육 농장수		97	96	95	94	94	93	93	93	-1.4
농장당 사육마릿수		32.2	31.9	34.0	34.6	34.4	34.2	36.3	36.5	5.3

주 1) 매월 1일 기준이며, 사육 농장수는 한우, 육우 복합사육농장이 포함된 숫자.

2) 2020년 9월은 통계청 가축동향에 발표된 잠정치이며, 1세 미만 마릿수는 추후 통계청 확정치 발표 시 증가할 수 있음.

자료: 통계청, 축산물품질평가원

## 도축(등급판정) 마릿수

## 1~10월 한우 도축(등급판정) 마릿수 전년 대비 증가

- 한우 도축 마릿수(1~10월): 64만 마리(전년 대비 1.6% 증가)
  - 거세우(전년수준), 암소(3.4%) 도축 증가
- 육우 도축 마릿수(1~10월): 6만 688마리(전년 대비 8.6% 증가)
- 한우 도축 마릿수(11월): 5만 5,435마리(전년 대비 5.9% 감소)
- 육우 도축 마릿수: 5,026마리(전년 대비 15.2% 감소)

## 한우 등급 판정 마릿수

단위: 마리

구분	연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합계
전체	2018	87,831	60,171	47,851	56,271	60,021	50,441	52,762	65,211	78,014	57,262	56,560	62,959	736,354
	2019	106,621	35,382	50,311	58,414	57,929	50,876	58,625	87,668	58,294	65,786	58,883	76,508	765,297
	2020	88,077	46,847	53,250	61,425	58,098	61,568	60,504	60,487	95,784	53,662			639,702
암소	2018	37,009	26,098	21,325	25,663	28,712	23,431	25,696	28,798	35,987	23,655	24,255	26,721	328,350
	2019	45,789	14,572	22,771	27,944	27,919	24,671	28,188	39,364	25,767	27,337	24,685	32,115	341,112
	2020	38,294	20,493	25,053	29,587	28,844	30,652	29,071	27,457	43,181	21,489			294,121
수소	2018	50,822	34,073	26,526	30,608	31,309	27,010	27,066	36,413	42,027	33,607	32,305	36,238	408,004
	2019	60,832	20,810	27,540	30,470	30,010	26,205	30,437	48,304	32,527	38,449	34,198	44,393	424,175
	2020	49,783	26,354	28,197	31,838	29,254	30,916	31,433	33,030	52,603	32,173			345,581

자료: 축산물품질평가원 「등급판정통계」

1~11월 도매가격 전년 대비 상승 ↑  
산지가격 전년 대비 상승 ↑

## 한우 도매가격

### 1~11월 수요 증가로 한우 도매가격 강세

- 한우 도매가격(전체 평균/1~11월): 1만 9,917원/kg(전년 대비 11.2% 상승)
- 코로나19 발생으로 가정 소비 확대
  - 긴급재난 지원금 지급, 비대면 판매확대, 추석 선물세트 등 국내 수요 증가

\* 가정내 한우고기 평균 구매량 (전년 동월비, %)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6.1	6.2	7.2	4.6	9.8	3.1	-8.3	15.7

자료: Kantar(TNS) Worldpanel Division

\* 농협(66개 매장) 매출액 (전년 동기비, %)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8~10월
23.4	23.2	42.4	14.7	16.4	-2.9	24.7	-14.6	8.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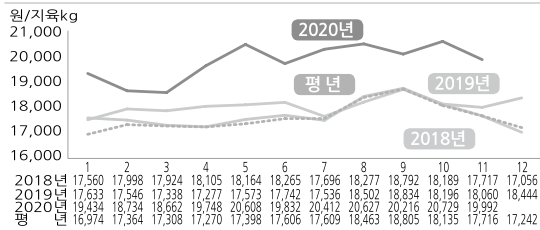
- 육우 도매가격(평균/1~11월): 1만 664원/kg(전년 대비 3.7% 상승)

## 한우 산지가격

### 11월 한우 송아지 평균가격 전년 대비 상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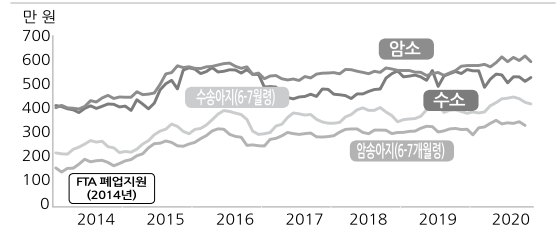
- 한우 암송아지 산지가격(6~7개월령): 353만 원(전년 대비 8.0% 상승)
- 한우 수송아지 산지가격(6~7개월령): 426만 원(전년 대비 7.1% 상승)
  - 도매가격 상승으로 송아지 입식 및 번식의향 상승 지속

#### 한우 전체 평균 도매가격 추이



자료: 축산물품질평가원 「축산물가격경보」

#### 한우 산지가격 동향



자료: 농협중앙회

## 단기 수급 전망(2020.12~2021.12)

### 사육 마릿수

### 한우 사육 마릿수 증가세 지속 전망

- 2020년 12월 한우 사육 마릿수: 320만 6천 마리(전년 대비 4.9% 증가)
  - 가임암소 154만 9천(4.4% 증가), 1세 미만 94만 1천(3.9% 증가)
- 2021년 12월: 328만 1천 마리(전년 대비 2.3% 증가)
  - 가임암소 158만 8천(2.5% 증가), 1세 미만 95만 2천(1.1% 증가)

#### 한우 사육 마릿수 전망

단위: 천 마리, %

구분		2020년				2021년			
		3월	6월	9월	12월	3월	6월	9월	12월
전체	마릿수	3,038	3,226	3,237	3,206	3,149	3,319	3,332	3,281
	증감률	4.5	4.3	3.9	4.9	3.7	2.9	2.9	2.3
1세 미만	마릿수	922	938	911	941	932	938	948	952
	증감률	6.0	5.3	1.4	3.9	1.1	0.0	4.0	1.1
가임암소	마릿수	1,462	1,487	1,543	1,549	1,513	1,538	1,586	1,588
	증감률	4.7	4.7	4.7	4.4	3.5	3.4	2.8	2.5

자료: 통계청, 농업관측본부 전망치

## 한우 도축 마릿수

### 2020~21년 한우 도축 마릿수 전년과 평년 대비 증가

- 2020년 도축 마릿수: 77만 7천 마리(전년 76만 5천, 평년 74만 8천)
  - 2020년 10~12월: 19만 1천 마리(전년 대비 5.0% 감소)
    - 10월 작업일수 감소(추석 연휴)와 11월 도축 감소
    - \* 도축(전년 동월비, %) : (10월) -18.4 → (11월) -5.9 → (12월) 7.2
- 2021년 도축 마릿수: 84만 2천 마리
  - 2021년 1~3월: 19만 5천 마리(전년 대비 3.4% 증가)

## 한우고기 도매가격

### 2021년 한우고기 전체 평균 도매가격 금년 대비 하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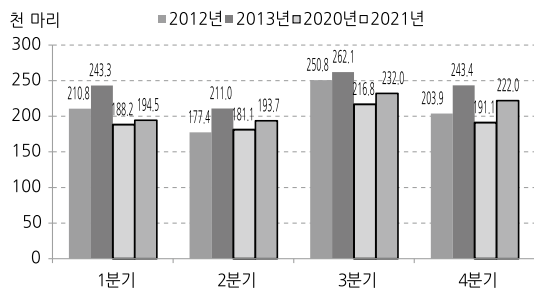
- 2020년 10~12월 도매가격(전체 평균): 1만 9,000원~2만 원(전년 대비 3~9% 상승)
- 2021년 2월 이후 도축 증가로 도매가격 전년 대비 하락세 전환
  - 2021년 전체 평균 도매가격: 1만 7,500~1만 8,500원으로 전년 대비 하락
  - 2021년 1~3월: 1만 8,000~1만 9,000원(전년 대비 0~5% 하락)

### 한우 도축 및 도매가격(전체 평균) 전망

단위: 천 마리, 원/kg,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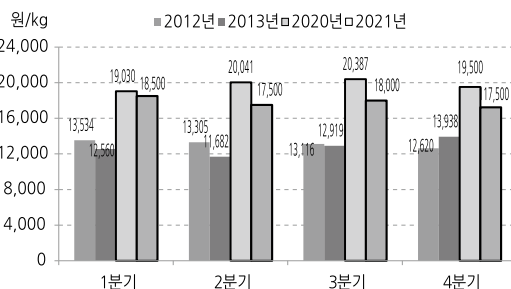
구 분		한우 도축 마릿수				한우 도매가격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2021년(A)		194.5	193.7	232.0	222.0	18,000~19,000	17,000~18,000	17,500~18,500	17,000~18,000
2020년(B)		188.2	181.1	216.8	191.1	19,030	20,041	20,387	19,000~20,000
2019년(C)		192.3	167.2	204.6	201.2	17,663	17,679	18,098	18,341
(A/B)		3.4	7.0	7.0	16.2	-5.1~-0.2	-15.2~-10.2	-14.2~-9.3	-15.0~-5.3
(B/C)		-2.2	8.3	6.0	-5.0	7.7	13.8	12.6	3.6~9.0
과거 불황기	2014년	210.8	177.4	250.8	203.9	13,534	13,305	13,116	12,620
	2013년	243.3	211.0	262.1	243.4	12,560	11,682	12,919	13,938
	2012년	239.9	207.8	251.8	221.5	14,002	13,885	14,744	14,426

### 한우 도축 마릿수 및 전망



주: 한우 도축 마릿수는 등급판정 마릿수 기준임.  
자료: 축산물품질평가원, 농업관측본부 전망치

### 한우 도매가격 전망



## 2021년 설 성수기 수급 분석

### 설 성수기 수급

#### 설 성수기 한우 도축 마릿수 전년 대비 증가, 수요 증가

- 2021년 설 성수기(설 전 4주간, 1.13.~2.10.) 도축 마릿수 평년(9.8만)대비 7~9% 증가한 10만 5천~7천 마리  
\* 26개월령 이상 개체수(20년 11월 기준) 전년 대비 증감수(천 마리): (암소) 42, (거세우) 13
- 설 성수기 수요 증가
  - 설 성수기 선물수요 및 코로나19 확산 여파에 따른 가정 소비 유지 등 수요 증가 예상
  - \* 경기 침체 심화 등으로 수요 감소 가능

### 도매가격

#### 설 성수기 한우고기 도매가격 평년 대비 상승

- 2021년 설 성수기 한우고기 전체 평균 도매가격 평년 대비 7~12% 상승한 1만 9,000~2만 원/kg 내외 형성

#### 2021년 설 성수기 한우 도축 및 도매가격 전망

단위: 천 마리, 원/kg

구분	2021년	2020년	평년	평년 대비(%)
도축 마릿수	105~107	101	98	7.0~9.0
도매가격	19,000~20,000원	19,333	17,717	7.0~12.0

자료: 축산물품질평가원, 2021년은 농업관측본부 전망치

## 중기 전망(2022~2025년)

### 사육 마릿수

#### 한우 사육 마릿수 증가세 지속

- 2022년 12월 한우 사육 마릿수: 332만 3천 마리(전년 대비 1.3% 증가)
  - 가임암소 160만(0.7% 증가), 1세 미만 97만 9천(2.8% 증가)
- 2023년 12월 한우 사육 마릿수: 337만 1천 마리(전년 대비 1.4% 증가)
  - 가임암소 161만(0.6% 증가), 1세 미만 100만 2천(2.4% 증가)

### 도축 마릿수

#### 가임암소 증가로 송아지 생산 늘어 2023년까지 도축 마릿수 증가세 지속

- 2022년 한우 도축 마릿수: 89만 5천 마리(전년 대비 6.3% 증가)
- 2023년 한우 도축 마릿수: 91만 9천 마리(전년 대비 2.6% 증가)
  - 한우 사육 증가로 도축 마릿수 지속 증가 전망

※ 2021년 1분기 송아지(6~7개월령) 입식 시 출하가 예상되는 2023년 1분기 한우 도축 마릿수 증가 전망  
→ 공급 증가로 도매가격 하락 예상, 신중한 입식결정 필요

#### 한우 사육 마릿수 전망

단위: 천 마리, %

구분		2022년				2023년			
		3월	6월	9월	12월	3월	6월	9월	12월
전체	마릿수	3,203	3,371	3,379	3,323	3,244	3,417	3,428	3,371
	증감률	1.7	1.6	1.4	1.3	1.3	1.4	1.5	1.4
1세 미만	마릿수	954	974	981	979	981	998	1,004	1,002
	증감률	2.3	3.9	3.5	2.8	2.8	2.4	2.3	2.4
가임암소	마릿수	1,544	1,558	1,601	1,600	1,553	1,567	1,612	1,610
	증감률	2.1	1.3	0.9	0.7	0.6	0.6	0.7	0.6
도축	마릿수	216	208	243	229	225	211	247	236
	증감률	11.1	7.2	4.6	3.0	4.0	1.7	1.6	3.2

자료: 농업관측본부 전망치



## 2025년까지 사육 마릿수 증가세 지속

- 2025년 12월 한우 사육 마릿수: 339만 7천 마리(전년 대비 0.3% 증가)
  - 가임암소 163만 4천(1.0% 증가), 1세 미만 100만 4천(0.1% 증가)
- 자율적 암소감축을 통한 사육 마릿수 조절 없이는 송아지 생산이 늘어 2025년 이후에도 사육 마릿수 증가세 지속 예상
- 한우 사육 마릿수 늘어 도축 지속 증가 전망
  - 도축 증가로 한우고기 도매가격 조정 불가피

### 한우 사육 마릿수 전망

단위: 천 마리,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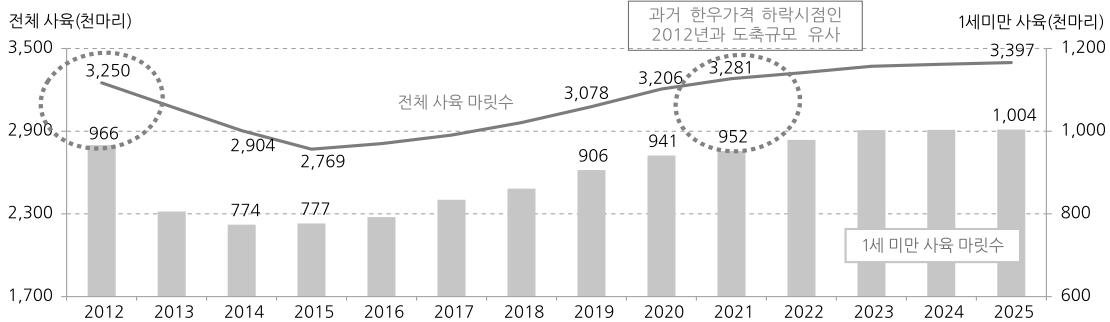
구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전체	마릿수	2,871	2,961	3,078	3,206	3,281	3,323	3,371	3,386	3,397
	증감률	2.2	3.1	3.9	4.2	2.3	1.3	1.4	0.4	0.3
1세 미만	마릿수	834	861	906	941	952	979	1,002	1,003	1,004
	증감률	5.3	3.2	5.2	3.9	1.1	2.8	2.4	0.1	0.1
가임암소	마릿수	1,372	1,427	1,484	1,549	1,588	1,600	1,610	1,618	1,634
	증감률	1.9	4.0	4.0	4.4	2.5	0.7	0.6	0.5	1.0

주 1) 매월 12월 1일 기준 마릿수임.

2) 2020년 12월 이후는 농업관측본부 전망치임.

자료: 통계청, 농업관측본부 전망치

### 한우 사육과 1세 미만 마릿수 전망



### 축산관측 (한육우) 다음호 예고 (예정일자: 2021. 2. 25.)

#### 축 중: 한육우

#### 내 용: 사육 동향과 전망, 가격 동향과 전망, 배합사료 생산동향, 소비동향, 수출입동향

『축산관측』은 농업관련기관·단체 홈페이지 및 농업 전문지를 통해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축산관측』과 관련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질의응답】을 선택한 후 【글쓰기】를 이용하여 의견을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연구원 홈페이지 【KREI 회원】에 가입하시면 『축산관측』을 전자우편(e-mail)으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인터넷 홈페이지 ☞ <http://www.krei.re.kr>  
<http://www.mafra.go.kr>

☎ 061) 820-2286 FAX: 061) 820-2411  
 ☎ 044) 201-2217 FAX: 044) 868-3965

담당자: 이형우(축산관측팀장), 김형진(한육우), 강지석(젖소), 심민희(돼지), 김명수(산란계), 정세미(육계), 김수연(오리, 해육축산)  
 감 수: 국승용(농업관측본부장)

『축산관측』은 농림축산식품부 지원으로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업관측본부가 축산농가의 사육과 출하 의향 등 각종 통계자료를 수집·분석한 후, 관련업계 전문가들에 자문하여 작성한 것입니다. 전망 결과는 앞으로 기상과 수급 여건의 변동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한우사육 100문100답

국립축산과학원

## Q : 유전체 정보를 활용한 우량 한우 선발이 가능한가?

일반적으로 특정 형질에 영향을 끼치는 몇 개의 유전자 마커를 이용하여 개체의 유전능력을 예측하는 기술이 개발되었던 적이 있었다. 하지만, 체중이나 근내지방도와 같은 주요 경제형질은 상당히 많은 유전자가 관여하기 때문에 이를 한 두 개의 유전자로 설명하기는 어렵다. 효과가 가장 큰 유전자라도 유전자 한 개는 전체 능력의 5%정도만을 설명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유전자의 능력이 우수하게 나왔다고 하더라도 이것만 보고 뽑는다면 5%를 가지고 개체를 선발하는 우를 범하게 된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는 다른 능력을 모두 알아보고 해당 유전자 분석으로 얻은 결과를 참고하여 선발을 수행하여야 한다. 다시 말해서, 유전적인 질병과 같은 형질이 아닌 한우의 주요 경제형질에 대하여 유전자 마커 몇 개를 가지고 능력을 분석해 준다고 하는 것은 신뢰도가 매우 낮아 개량에 적극적으로 활용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하지만 소 한 마리가 갖고 있는 상당히 많은 수의 유전자를 검사할 수 있는 기술이 개발되어 미국, 캐나다와 같은 나라에서는 젖소에 대하여 2000년대 초부터 유전자 검사

와 능력검정을 동시에 실시하여 얻은 결과를 토대로 2009년부터 소 1마리당 약 5만개의 DNA마커를 검사하여 소의 유전적 능력을 예측하여 선발에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2010년대 초부터 유전체를 활용한 개량연구를 진행해 왔으며, 국립축산과학원은 2018년에 한우전용 chip(약 5만개의 SNP 정보)을 개발하였다. 이렇게 얻은 DNA마커 정보를 이용하면 부모의 평균값으로 구한 유전능력보다 10~30%정도 더 정확한 유전능력을 구할 수 있다.

DNA로 어떤 능력을 예측하는 것은 품종이나 집단에 따라 서로 다른 결과를 나타내기 때문에 미국 젖소에서 사용하는 기술을 우리나라 젖소에 그대로 적용하기 어렵고 특히 우리나라 고유 품종인 한우에는 적용이 어렵다. 국립축산과학원은 2010년대 초부터 지속적으로 한우의 표현형 자료와 유전체 정보를 수집하여 참조집단을 구축해 왔으며, 현재까지 약 9,000여두의 참조집단을 구축하였다. 그 결과 유전체 정보를 활용하여 2018년부터 유전체 육종가를 추정하여 보증씨수소 선발에 이용하고 있으며, 현재도 지속적으로 참조집단의 수를 늘려 평가의 정확도 향상을 위해 연구 중이다.

◆ 문의 : 국립축산과학원 한우연구소 (033-330-0661)

## Q : 군사 축사에서 발정발견 요령은?

군사 시 발정우의 발견은 3개월령 이상 된 수송아지가 최초로 발견하는데, 발정우의 꼬리를 따라다니기 시작하고 승가행동을 개시한다. 그 다음 순으로는 거세 송아지가, 그리고 성빈우가 승가행동을 한다.

외부적 징후를 보고 관리자가 발정을 발견하는 시점은 수송아지가 발견하는 시점의 1일 이후이므로 수송아지의 행동을 주의 깊게 관찰하면 발정 발견율을 높일 수 있다. 발정발견은 저녁 7시 이후에 가장 많이 나타나고, 새벽이 그 다음이며 낮 시간대의 발견이 가장 적다. 또한 사료를 급여할 때 채식량을 주의 깊게 살펴 평상시보다 섭취량이 적은 소들을 집중 관찰하는 것도 발정우를 발견하는 좋은 방법이다. 하루 2회 관찰할 때 발견율이 높다.

◆ 문의 : 국립축산과학원 한우연구소 (033-330-0625)

## Q : 외부에서 구입한 송아지의 입식초기 관리 요령은?

외부에서 구입한 송아지는 보통 3~5개월령의 어린송아지로 환경변화에 따른 저항력이 약한 상태이기 때문에 사육장소 및 사료변화에 따라 스트레스를 받게 되어 각종 질병에 대한 저항성이나 반추위 운동이 약해지기 쉬우므로 입식초기에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한다.

- ① 구입한 송아지는 가능한 2시간 이상의 장거리 수송을 피해야 하고 수송 시에도 차량 한대에 너무 많은 두수를 적재하지 않도록 한다.
- ② 축사는 벽과 바닥 등을 소독하고, 바닥은 건조하게 깔짚을 깔아주고 안정감이 있도록 해주며 우사의 환기에 유의한다.
- ③ 도착 후 첫날은 물과 양질의 건초를 두당 0.5kg씩 급여하되, 건초가 없을 때는 깨끗한 잘 마른 볏짚을 10cm 정도로 세절하여 먹을 수 있도록 한다.
- ④ 겨울철에는 도착 후 따뜻한 물을 급여하고 안정시키면서 스트레스 방지와 피로회복을 위하여 비타민 A, D, E제제와 영양제를 주사하고 질병예방을 위하여 항생제를 2~3일 간격으로 주사한다.
- ⑤ 배합사료는 체중의 0.5~1.0% 수준을 오전과 오후로 나누어 2~3일간 급여하고 3~4일 후부터는 분의 상태를 살피면서 0.5kg씩 증량해 주어 목표량까지 증가시킨다.
- ⑥ 사료적응은 2~3주간 점차적으로 실시하되 가능한 입식 전에 먹었던 사료를 급여하고 서서히 사료를 전환함으로서 설사가 나지 않게 한다.
- ⑦ 인공유(어린송아지사료)를 급여하던 송아지는 인공유와 중송아지사료를 70 : 30으로 4~5일간 급여한 후 완전히 중송아지사료로 바꾸어 준다.
- ⑧ 식욕이 좋지 않은 송아지는 제1위 강화제나 소화제를 급여하도록 하며 이때 내부기생충 구제도 함께한다.

◆ 문의 : 국립축산과학원 한우연구소 (033-330-0693)



## Q : 우사의 설계 및 건축 요령은?

우사는 소가 활동하기에 편하고, 사육관리가 용이하며 노동력이 적게 들어야 한다. 또한 우사를 유지하는 비용이 적게 들고 기계화 작업이 편리해야 한다. 이는 한우 번식우와 비육우 관리시간의 대부분이 사료조제 급여와 분뇨처리에 소요되고 있기 때문이다. 우사 건축 시 사육방식, 관리방법, 우사형태, 우사배치, 분뇨처리 방법 등을 고려하여 설계한다. 번식우사나 비육우사는 구조상 거의 같으나 사업계획 수립 시 번식 중심인지, 비육 중심인지를 결정하여 우사를 건축해야 한다. 또한 우사형태는 개방식 우사가 가장 효과적이거나 분뇨처리를 손쉽게 하기 위해서는 깔짚 우사가 효과적이므로 여러 조건들을 생각하여 결정하도록 한다.

우사는 창고, 기타 부속건물의 위치를 함께 고려하여 배치해야 하며, 사일로, 축산 간의 거리, 조경수 등도 우사 주변의 공기흐름에 영향을 미치므로 고려의 대상이다. 햇빛 방향에 있는 건물들은 우사 내의 일조에 많은 영향을 주므로 개방식 우사인 경우 남쪽에는 통풍과 채광에 방해가 되는 건물이 위치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또한 동쪽을 가리게 되면 겨울철에 햇빛을 받는 시간이 짧아지고 여름철 통풍에 지장을 주게 된다. 깔짚우사는 남향으로 배치되도록 한다.

자연환기 방식의 우사를 2열로 배치할 경우 우사의 용마루 높이와 앞 우사와 뒤 우사간의 알맞은 거리를 고려한다. 일반적으로 우사 중앙의 천정높이가 5m인 경우 우사간의 거리는 25m 정도 거리를 두는 것이 통풍을 효과적으로 유지하게 된다.

우사 건축 시 사전에 고려해야 할 사항

구분	선택방식
사육 방식	번식중심, 비육중심, 일관사육 중심
관리 방법	계류식, 방사식
우사 형태	폐쇄식, 개방식(완전, 부분)
우사 배치	직렬형, 병렬형, 단식, 복식
분뇨처리방법	깔짚우사, 퇴비화, 인력

◆ 문의 : 국립축산과학원 한우연구소 (033-330-0693)

## Q : 한우 두당 우사의 적정 면적은?

한우는 6~7개월령 이전에는 서로 순위다툼을 위한 싸움은 하지 않지만, 이후 순위다툼 싸움을 시작하여 9개월령 정도가 되면 싸움을 자주하게 되고 2~3세가 되면 무리의 서열이 확실하게 정해져 싸움을 멈춘다.

상위 서열의 소는 사료를 더 많이 먹고, 더 좋은 자리를 차지하려고 약한 소를 계속해서 밀어내기 때문에 약한 소에게는 강한 소를 피할 수 있는 최소한의 회피공간을 제공해야 한다. 이 회피 간격은 3m정도가 되어야 하며 순위가 낮을수록 크게 요구된다. 또한 뿔이 있는 소는 머리와 머리의 간격이 1m이상이어야 하지만 제각을 한 후에는 10~35cm로 크게 줄어든다. 따라서 소를 군사식으로 사육할 경우에는 적절한 군의 크기와 사육 밀도가 제공되어야 한다.

한우의 경우 0~2개월령의 송아지는 어미소와 함께 사육되는 경우가 보통이지만 다두 번식 농가에 있어서 쌍태 생산이나 어미소의 사고 등의 이유로 송아지를 별도 격리시켜 사육할 필요가 있는 경우가 자주 발생한다.

가축사육시설 단위면적당 적정 가축사육기준

시설형태	번식우(m <sup>2</sup> /두)	비육우(m <sup>2</sup> /두)	송아지(m <sup>2</sup> /두)
방사식	10.0	7.0	2.5
계류식	5.0	5.0	2.5

◆ 문의 : 국립축산과학원 한우연구소 (033-330-0693)

※ 출처 : 축산현장 애로기술 해결을 위한 한우사육 100문100답집 (2019. 12., 국립축산과학원)



# 소식 정보

|||||

Weekly 농축유통신문

## “70% 할인! 코로나로 지친 겨울 따뜻한 한우 곰탕으로 으쌔!”

한우 농가가 판매하는 영양 만점 한우 부산물이 소비자 손길을 기다리고 있다. 최대 77% 할인된 가격으로 전국 한우협회가 직접 론칭한 한우 부산물 세트는 소비자의 지갑을 지키고 맛까지 잡은 품질 좋은 한우 부산물 라인업으로 무장했다.

전국한우협회는 지난달 19일부터 이달 18일까지 한 달간 한우 사골, 한우 꼬리반골 등을 63~77% 할인된 가격으로 판매한다고 최근 밝혔다.

협회가 내놓은 상품과 가격은 한우사골 1마리 분을 77% 할인된 5만 원에, 한우사골 1마리 분과 한우사태 1kg을 71% 할인된 7만 5,000원에, 한우 꼬리반골 1마리 분을 63% 할인된 6만 5,000원에, 한우우족 1마리 분을 65% 할인된 5만 원에, 한우잡뼈 1마리 분을 71% 할인된 3만 원에 판매한다.

주문은 한우협회 직영 온라인몰인 ‘한우먹는날’과 전국한우협회로 전화 주문하면 가능하며, 포장비와 배송비는 무료다. 한우협회에서 준비한 이번 특별기획 상품은 수수료는 쪽 빼고 농가에서 직접 공수하면서 품질과 맛, 가격까지 잡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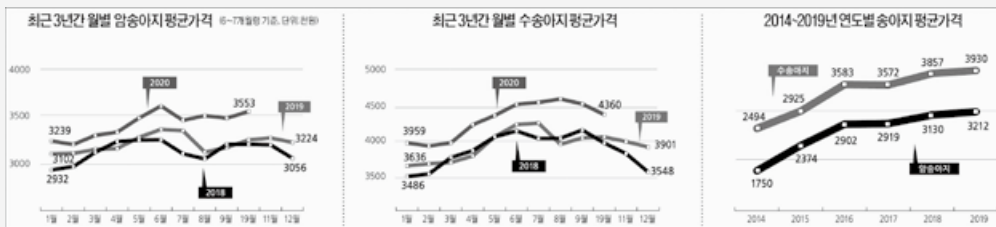
김홍길 전국한우협회장은 “한우고기에는 최고급 단백질과 우수한 영양소가 풍부해 면역력 향상과 건강에 도움을 주므로 많은 국민들이 저렴한 가격에 구매할 수 있도록 이번 할인행사를 계획했다”고 말했다.

## 송아지 가격 높아도...농가 자연종부 “안돼요”

한우 송아지가격 고공행진 4월 이후 400만원 훌쩍 넘어  
자체 보유 씨수소 이용 자연종부 행위 적지 않아

지금 송아지 출하하는 2년 후 한우가격 폭락 불안에  
저렴한 정액 구입한 후 인공수정한 것처럼 속이기도

개량성과 찬물·질병 노출 걱정  
유전적 불량 형질 나타날 수도



한우 송아지 가격이 400만원을 훌쩍 넘는 등 높은 가격에서 지속적으로 형성되면서 일부 농가들이 자체 보유한 씨수소를 이용해 자연종부하는 행위가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우업계 전문가들은 이 같은 행위가 꾸준히 지속해온 개량성과를 무너뜨리고 질병 노출에 취약한 만큼 자제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한우업계에 따르면 최근 한우 송아지 가격이 오랜 기간 고공행진하면서 송아지 구매에 부담을 느낀 일부 농가를 중심으로 인공수정이 아닌 자연종부를 선택하는 경우가 나타나고 있다. 실제 농협 축산정보센터의 연도별 송아지 평균가격을 살펴보면 2014년 249만원 수준이었던 수송아지 가격은 2015년 292만원, 2016년 358만원, 2017년 357만원, 2018년 385만원, 2019년 393만원으로 매년 꾸준히 올랐다. 2020년에도 지난 4월 평균가격이 421만원을 기록하는 등 월 평균가격이 400만원을 넘어선 후 6월 450만원, 8월 458만원, 10월 436만원으로 나타났다. 2014년 연평균가격이 175만원에 불과했던 암송아지 가격도 2015년 237만원, 2016년 290만원, 2017년 290만원, 2018년 313만원, 2019년 321만원으로 상승세가 지속



됐다. 올해도 지난 6월 평균가격이 361만원까지 치솟는 등 350만원대에서 거래되고 있다.

특히 현 시점에서 높은 가격에 구매한 송아지를 출하하는 2년 후에 한우가격이 폭락할 수 있다는 농가들의 우려도 이 같은 현상으로 이어지고 있다. 실제 한국 농촌경제연구원의 한우관측에 따르면 328만두 수준인 한우 사육두수가 2022년 330만두를 훌쩍 넘어서고 2022년 도축두수는 전년대비 5.5% 증가한 89만1000두로 예상되는 등 공급 증가에 따른 도매가격 하락이 예상되고 있다. 2021년 한우 도매가격은 2020년 12월~2021년 2월 1만8000~1만8500원(1kg 기준), 3월~5월 1만7000~1만7500원, 6월~8월 1만8000~1만8500원, 9월~11월 1만7000~1만7500원에 형성될 것으로 예측했다. 올해 가격과 비교해 최소 2.1%에서 최대 13.1%까지 하락한 수치다. 한우농가들을 컨설팅하고 있는 한 전문가는 “한우 송아지 가격이 높아지면서 생산현장에서는 자연종부하는 농가들이 일부 발생하고 있다”며 “저렴한 정액을 구입해 인공수정한 것처럼 한 후 실제로는 자연종부를 진행한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일부 농가들의 자연종부 행위를 두고 가축 개량 측면과 질병 예방 차원에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한우업계 전문가는 “브루셀라 같은 질병은 수소와의 교배 등으로 감염될 수 있다”며 “일부 농가들이 높은 송아지 가격에 대한 부담, 정액값과 인공수정료 절감 등을 이유로 자연종부를 실시하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자연종부는) 오히려 질병에 쉽게 노출될 수 있고 유전적으로 불량 형질이 나타날 수 있는 등 힘들게 쌓아온 개량의 성과를 잃게 만들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또 “아직은 자연종부를 실시하는 농가들이 많지 않지만 향후 한우가격 등에 따라 늘어날 수도 있다”며 “가축 개량을 지속하고 질병 예방 차원에서 자연종부를 자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 ‘한우를 더 새롭게 더 특별하게’ 2020 한우바이어 대회 개최 코로나19로 온라인 비대면 행사 진행



전국한우협회(회장 김홍길)와 한우자조금관리위원회가 주관·주최하는 ‘2020 한우바이어대회’가 오는 15일 온라인 비대면 행사로 개최됐다.

올해 5회째를 맞이하는 한우바이어대회는 2016년부터 한우농가와 바이어간 소통의 자리를 마련하고 한우바이어간 교류 및 정보제공을 통해 한우고기 소비를 촉진하기 위해 마련됐다. 또한, 한우를 일선에서 판매하는 바이어들을 격려하고 한우 유통망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개최하고 있다.

이번 행사는 코로나19로 인해 온라인 비대면으로 한우유통업체의 구매담당자, 유통업체, 육가공업체 등 약 8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한우를 더 새롭게 더 특별하게’라는 주제로 진행된다.

특히, 한우를 더욱 새롭게 즐길 수 있는 T본 스테이크와 토마호크 스테이크 정형 시범을 보이고 상품화 방안을 마련하는 등 한우를 더욱 특별하게 굽는 법도 볼 수 있다.

김홍길 회장은 “항상 유통업계 최전방에서 한우고기 판매와 소비촉진을 위해 애써주는 바이어들의 노고에 감사드린다”며, “코로나19로 인해 비대면 행사로 진행하지만, 한우를 더 새롭고 더 특별하게 즐길 수 있는 소통의 자리를 만든 만큼 내년 소의 해에는 더 가치있게 판매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 전국한우협회 한우후계장학금 전달

미래 축산 인재 20명에게 250만원씩 5천만원 전달



전국한우협회는 12월 16일(수) 제2축산회관 대회의실에서 미래 축산 인재들에게 한우후계장학금 전달식이 개최됐다.

전국한우협회는 협회 한우농가 및 자녀 중 농축산관련학과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지난 11월 신청·접수를 받았으며, 선정위원회를 구성하고 최종 심사를 통해 총 20명의 장학생을 선정했다. 선정된 장학생들에게는 1인당 250만원씩 장학금을 전달해, 총 5,000만원의 장학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장학생들은 각 지역별로 인원을 배정해 선정했으며, 지원자들의 포부 및 역량, 학과 및 성적, 자격증, 봉사활동 등 전반적인 사항들을 고려해 선정했다.

전국한우협회 김홍길 회장은 “올해 NS홈쇼핑의 장학금기탁으로 첫 한우후계장학금을 마련해 장학생들에게 전달하지만, 앞으로 미래 축산의 발전과 한우후계자들의 역량강화를 위해 단발성이 아닌 연속성 있게 이어가도록 노력하겠다”며, “선정된 학생들도 학교를 졸업한 후 현장 혹은 전방위산업에서라도 한우산업에 대한 열정과 노력을 기울여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 전국한우협회 전농가 회원 동의서

우리 한우 산업은 지금까지도 많은 난관을 극복 해왔지만 더 안정되고 보람된 생활을 위해서는 앞으로도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산적해 있습니다. 특히 지방화 시대를 맞아 시·군의 협회 활동이 더욱 절실히 요구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일들은 농가 혼자서 해결 할 수 없고 한우 농가 전체가 함께 할 때 해결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우리 농가 전체가 전국한우협회의 회원이 되고 그 회비는 자조금 2만원 중에서 3천원을 협회비로 거출하여 지회·지부의 활동비로 사용하여 우리가 바라는 안정된 한우 산업을 이끌어 갑시다.

절 취 선

## 전국한우협회 회원 가입 및 회비 납부 동의서

본인은 한우자조금 2만원 중 3천원(한우자조금 17천원)을 전국한우협회비로 납부할 것을 동의하며, 약속대로 한우산업에 요긴하게 쓸 것을 당부드립니다.

성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휴대폰)	

개인정보보호(개인정보의 수집, 이용에 관한 동의서)

전국한우협회는 회원가입 등을 위하여 위와 같은 개인정보항목을 수집하고 있으며, 상기 가입서 내용은 본인이 직접 작성을 하였고, 개인 정보보호법에 의거한 개인정보수집, 이용, 제공에 대하여 동의하므로 서명 또는 날인합니다.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전국한우협회 귀 중